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1

박현숙 외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01 운율, 비유, 상징의 즐거움

제재 01

본책 11쪽

1 ② 2 ② 3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 4 ③

1 이 시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을 반복하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같은 호흡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눈이 내린 날의 풍경에서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눈이 녹은 풍경으로 바뀌고 있다.

③ 이 시는 '하얀 이불', '자장가', '아이들'과 같이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이른 봄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④ '봄눈', '파란 싹들'과 같은 시어를 통해 이 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이른 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시의 후반부인 5~8연에서는 봄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통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 이 시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을 반복하고, '평 평', '나즉 나즉', '좌아악', '악자지깎'과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 ㉠ '자장가'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잔잔하고 소리가 낮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4 [A]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이른 봄의 생동감을 더욱 구체화하고, 파란 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참신하게 표현하여 감상의 재미를 준다. 반면, <보기>는 파란 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재 02

본책 13쪽

1 ⑤ 2 ④ 3 갖고 싶다 4 ④

1 이 시의 3~4연에는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와 같이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은 말하는 이의 소망이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고 싶은 말하는 이의 소망은 1~2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화안히'는 '환히'를 의도적으로 늘어 쓴 표현으로, 이처럼 시에서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를 주거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 허용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② 이 시는 '별', '꽃'과 같은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의 1연과 2연에서는 '나도 ~이 될 수 있을까. / ~ 주는 ~이 될 수 있을까.'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세상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 '마음 어두운 밤' 등의 표현에서 말하는 이가 현재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자료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은 시에서만 특별히 허용하는 문법적 허용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어긋나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여 운율적 효과를 주고, 강조, 변화, 아쉬움, 미련, 동정, 애착 등의 느낌을 주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2 이 시는 '별', '꽃', '길' 등의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자신도 동시에 그러한 존재를 갖고 싶은 말하는 이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소망을 제시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는 '될 수 있을까'의 간접적 제시에서 '갖고 싶다'의 직접적 제시로 전환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ㄱ.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ㄴ.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3 3연과 4연의 마지막에 '갖고 싶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 이 시에서 '별'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위로가 되는 존재, 힘이 되는 존재 등을 상징한다.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상징한다.

독집계 **썩** 예상 문제

본책 14~17쪽

01 ③ 02 ⑤ 03 평 평, 나즉 나즉, 좌아악, 악자지깎 04 ③
05 ③ 06 ④ 07 ⑤ 08 ⑤ 09 ④ 10 ① 11 ③
12 ② 13 ② 14 마음 어두운 밤 15 ② 16 ④ 17 ②
18 열: 어린, 아홉: 청소년 19 ⑤ 20 ④ 21 ④

01 이 시는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⑤ 이 시는 봄눈이 내린 날과 다음 날 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돋아난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② 이 시의 8연에서 '파란 싹들'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시는 직유, 은유, 의인과 같은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난 이른 봄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02 이 시의 7~8연에서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파란 싹이 돋아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산과 들로 뛰어나오는 풍경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③ 이 시의 5~8연에서 봄눈이 내린 다음 날, 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시에서 '하얀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눈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이를 통해 봄눈이 내려 산과 들에 쌓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④ 이 시의 3~4연에서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자장가처럼 나직 나직 들렸다고 하였다.

03 이 시는 '평 평, 나직나직, 좌아악, 왁자지껄'과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이 시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같은 호흡을 반복하여 각 장을 네 번 끊어 읽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5 비유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주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시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그러나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운율의 효과이다.

06 [A]에서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잔잔하고 소리가 낮다'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대상을 '처럼'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빗댄 직유에 해당한다.

07 ㉠ '하얀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눈'을 이어 주는 말 없이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08 ㉡은 '처럼'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이 돋아난 모습을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모습에 직접 빗대는 표현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직유가 사용된 것은 ⑤로, '내 얼굴'을 '배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사람이 아닌 '꽃', '나무'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이 사용되었다.

② 이어 주는 말 없이 '너'를 '햇살'에 빗댄 은유가 사용되었다.

③ 이어 주는 말 없이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댄 은유가 사용되었다.

09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이 달라지고 있지 않으며, 시의 분위기도 전환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이 시는 '별', '꽃'과 같은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의 2연에서 '화안히'는 '환히'를 의도적으로 늘어 쓴 표현으로, 이를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⑤ 1~2연에서 '될 수 있을까'의 간접적 형태로 드러난 말하는 이의 소망이 3~4연에서 '갖고 싶다'의 직접적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10 이 시는 1연과 2연에서 '나도 ~이 될 수 있을까. / ~ 주는 ~이 될 수 있을까.'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외로울 때 부르며 다가오는 '별'과 같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를 갖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마음 어두운 밤'과 같은 구절을 통해 말하는 이가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있지 않다.

④ 말하는 이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말하는 이가 이웃 간의 대화가 사라진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12 말하는 이의 어조는 시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와 관련 있다. 이 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소망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독백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1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은 상징 표현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고 싶고, 그러한 존재를 자신도 갖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을 소망한다고 볼 수 있다.

14 '마음 어두운 밤'은 말하는 이가 현재 어둡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15 상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징을 활용하면 대상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여 맥락에 따라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상징은 표현하려는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③ 상징을 사용하면 다양한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④ 상징을 상징하면 추상적인 대상을 일상적 의미 외에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⑤ 상징에는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쓰인 결과 굳어져서 보편화된 관습적 상징 외에도 원형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이 있다.



참고 자료

상징의 종류

원형적 상징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상징 예 빛: 근원 · 신성, 어둠: 혼동 · 죽음
관습적 상징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쓰인 결과 굳어져서 보편화된 상징으로, 제도적 상징이라고도 함. 예 비둘기: 평화, 십자가: 기독교
개인적 상징	개인에 의해 독창적으로 만들어져서 문학적 효과를 거두는 상징으로, 문학적 상징 또는 창조적 상징이라고도 함.

16 이 시에서 ㉠ '사랑하는 별 하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힘이 되는 존재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④와 같이 친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재희가 ㉠에 가장 가깝다.

17 이 시에서 ㉠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상징한다.

| 오답 풀이 | 다. 말하는 이가 현재 처한 현실을 나타내는 구절은 '마음 어두운 밤'이다.

라. 위로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별', '꽃'이다.

18 (라)에서 숫자 '열'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이룬 '어른'과 같다면 '아홉'은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청소년'과 같은 수라고 하였다.

19 (가)에서 동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고 하였다.(ㄱ) (나)에서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으며(ㄴ), (다)에서 글쓴이는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ㄷ).

| 오답 풀이 | 다. (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숫자 '열'을 완전하고 성공한 수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라. (다)에서 글쓴이는 인간은 저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 났으며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모든 기록은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20 ㉠은 우리 선조들이 숫자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음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1 이 글에서 숫자 '아홉'은 청소년과 같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수를 의미한다. 즉 글쓴이는 ㉠을 통해 숫자 '아홉'처럼 청소년은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청소년에게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고난도 입심화문제

본책 18~19쪽

01 ② 02 ⑤ 03 ⑤ 0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소망한다. 05 ③ 06 ② 07 ③ 08 ③ 09 ②

01 (가)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에서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라는 시구를,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별', '꽃', '길'과 같은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대비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나)와 달리, (가)는 '평 평', '나즉 나즉', '좌아악', '왁자지껄'과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의 속성을 유교적 이념과 연결하여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가)의 5~8연에서는 봄눈이 내린 다음 날 해가 떠오르면서 봄눈이 녹고, 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싹들이 돋아난 풍경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이른 봄의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3 (나)는 1~2연에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말하는 이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나'라는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② '마음 어두운 밤'과 같은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가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현실에 체념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말하는 이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말하는 이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4 (나)에서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은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과 그러한 존재를 갖고 싶은 소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즉, 말하는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별’, ‘꽃’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여 썼다.	☐
제시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5 [A]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이 돌아난 모습을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보기> 또한 귀뚜라미가 슬프게 운다고 표현하면서, 귀뚜라미에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부여하는 의인을 사용하였다.

- 06 ㉠ ‘자장가’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의인이 아니라 두 대상을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직접 빗대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 ‘하얀 이불’은 산과 들에 쌓인 눈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 ㉢ ‘아이들’은 눈이 녹은 자리에 돌아난 파란 싹들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 ㉣ ‘갖고 싶다’라는 표현에서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은 말하는 이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 ㉤ ‘마음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현재 어둡고 고된 현실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7 (나)에서 ㉠ ‘꽃’은 내게 공감해 주는 존재, 나를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 <보기>의 ‘꽃’은 ‘식물의 가지나 줄기 끝에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피어나는 부분’이라는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 (나)에서 ㉢ ‘꽃’은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안기어 눈물짓듯 웃어 주는 존재로, 내게 공감해 주는 존재, 나를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상징한다.

- 08 이 글은 숫자 ‘열’과 ‘아홉’을 각각 ‘어른’과 ‘청소년’에 비유하고 있다. ‘열’과 ‘어른’은 이미 이를 것을 이룩하여 완전하며, ‘아홉’과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마지막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09 글쓴이는 숫자 ‘아홉’처럼 청소년은 미래를 향한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청소년에게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2 추론하며 듣기

활동 학습

본책 23쪽

1 ① 2 ④ 3 ② 4 ②

- 1 추론하며 듣기란 담화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여 듣는 것이다.

- 2 담화의 상황 맥락에는 장소 외에도 시간, 화자와 청자, 의도와 목적 등이 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한 같은 말이라도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3 이 담화는 여학생을 기다리는 남학생과 약속 시간에 늦은 여학생이 영화관 앞에서 나눈 대화이다. “지금 몇 시니?”라는 남학생의 말에는 약속 시간에 늦은 여학생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나.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영화가 이미 시작된 시각인 2시 30분이다.

마. (나)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이 지금 시계가 가리키는 정확한 시각을 궁금해한다고 추론하여, 현재 시각을 알려 주고 있다.

- 4 이 담화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난 상황이다. (가)에서 여학생은 이를 인지하고,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활동 학습

본책 25쪽

1 ④ 2 ② 3 ② 4 ㉠: 과자는 고맙지만 사양할게. ㉢: 다치긴 했지만 참을 만해.

- 1 민서가 자신 대신 재원이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을 뿐, 재원이 종하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 2 종하는 내일까지 학급 게시판을 꾸며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 “내일 시간 있어?”라는 말에는 민서에게 함께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3 ㉠ “내가 어제 팔을 다쳐어.”는 민서가 어제 팔을 다쳐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는 종하의 요청을 거절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 4 “괜찮아”는 상황에 따라 ‘보통 이상이다.’라는 뜻 외에도 ‘거절’, ‘위로’, ‘격정’, ‘승낙’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이 담화에서 ㉠의 “괜찮아.”는 과자를 먹겠느냐는 종하의 권유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쓰였으며, ㉡의 “괜찮아.”는 팔을 다친 것을 걱정하는 종하에 대한 답변으로 ‘보통 이상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활동 학습

본책 27쪽

- 1 ㉢ 2 ㉤ 3 ㉣ 4 기자는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원인을 처벌 규정의 부재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 1 뉴스 보도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를 들을 때에는 담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전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 2 이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의 처벌 규정이 없어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관련 법을 현재보다 실효성 있게 바꾸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 3 보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자는 자전거 이용자 and 자전거 대여소 관계의 인터뷰,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낮은 안전모 착용률 등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 신뢰도 높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는 이 뉴스 보도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4 ㉠에서 기자는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활동 학습

본책 28~31쪽

- 1 ㉣ 2 ㉤ 3 ㉢ 4 화자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 6 하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 보세요. 7 ㉡ 8 ㉤
- 1 이 담화는 설득 담화의 하나인 연설로, 연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여 듣는 이를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말하기이다.
- 2 이 담화는 연설로,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화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화자의 관점과 가치관을 토대로 화자가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바를 파악하며 듣는 것이 중요하다.

- 3 (가)에서 화자는 자신을 열여섯 살의 종합 격투기 프로 선수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나)에서 초등학교 시절, 또래보다 활발하게 행동하던 화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친구들에게 화자가 따돌림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나.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열여섯 살의 나이에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였다.

르. (나)에서 화자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였다.

- 4 ㉠은 화자가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이다.
- 5 화자는 이 연설을 통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청중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자는 가치관을 전하고 있다. ㉤는 이러한 화자의 가치관과 거리가 멀다.
- 6 이 연설에서 화자는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하여 시련을 극복하게 된 경험을 소개하고, 마음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 7 화자는 권투 연습장의 회원 모집 전단을 보고, 권투를 하면 누구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은 화자가 권투를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은 권투를 배우게 되면서 매사에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던 본래의 성격을 되찾았다는 의미이다.
- 8 화자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책했으나,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된 후에는 자신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독집해 썩 예상 문제

본책 32~35쪽

- 01 ㉢ 02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대화하면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원활해진다. 03 ㉣ 04 ㉢ 05 ㉣ 06 ㉢ 07 ㉣ 08 ㉡ 09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 10 ㉣ 11 마음의 근육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게 된 마음을 의미한다. 12 ㉢ 13 ㉤ 14 ㉡ 15 ㉤ 16 5초의 짧은 시간이라도 생활 안전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01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답변을 해야 한다. 또한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ㄱ. (가)와 (나)는 일상 담화로, 대부분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진다.

ㄴ. 같은 표현이라도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ㄷ. 동일한 형식의 말이라도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자는 각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02 같은 말이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대화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명확해진다.

03 (가)와 <보기>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가)는 남학생이 약속 시간에 늦은 여학생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화를 내는 상황이고, <보기>는 시계를 잃어버린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현재 시각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04 ㉠은 종하가 민서에게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의도가, ㉡은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는 종하의 부탁을 거절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05 (나)에서 “괜찮아.”라는 말은 그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은 과자를 먹겠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거절’의 의미를 지니고, ㉣은 많이 다쳤냐고 걱정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06 자전거 교통사고가 난 사람 중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20퍼센트이고, 그만큼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률은 20퍼센트 이하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2018년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기자의 말에서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유명무실한 안전모 의무화 규정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가 법규 시행 전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91명이라고 하였다.

07 이 뉴스 보도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낮은 안전모 착용률 등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자전거 안전모의 미착용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08 ㉠ ‘유명무실한 안전모 의무화 규정’은 자전거를 타려면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람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 교통법의 개정으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9 기자는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화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자의 말에서 추론할 수 있는 대안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10 연설의 시작 부분에서 화자는 겉모습이 예쁘게 나온 사진과 권투 시합 직후의 사진을 대조하여 제시하면서 화제를 이끌어내고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겉모습보다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ㄱ. 화자가 제시한 ‘두 장의 사진’은 문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ㄴ. ‘두 장의 사진’은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낼 뿐, 다른 사람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다.

11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였다.

12 (나)에서 화자는 권투 연습장에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전단을 보고, 권투를 하면 누구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다. 즉 ㉠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던 화자에게 권투 연습장의 회원 모집 전단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도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는 의미로, 화자는 권투가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13 ㉠은 화자가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긴 뒤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보아도 신경 쓰지 않게 된 변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라)에서 마음의 근육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더 강하고 단단해진다고 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가 들어가야 한다.

14 이 광고는 5초의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다.

- 15 이 광고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가)의 수영장에서 (나)의 건널목으로 장소가 바뀌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 16 (가)의 승강장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승강장을 이용할 때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나)의 건널목에서 “5초만!”이라는 말은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가)와 (나)의 광고는 5초의 짧은 시간이라도 생활 안전 규칙을 떠올리며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고난도 읽기 심화 문제

본책 36~37쪽

- 01 ㉠ 02 ㉠ 03 “괜찮아요”라는 표현이 ㉠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긍정의 의미로, ㉡에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보통 이상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동일한 표현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04 ㉡
- 05 ㉠: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의도 / ㉡: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는 종하의 부탁을 거절하는 의도 06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07 ㉣ 08 화자는 단단하게 성장한 내면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해 ㉠을 제시하였다.
- 01 담화에서 상황 맥락이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맥락 등으로 구성된다.
|오답 풀이| ① 담화 참여자는 화자와 청자로 구성되며,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청자는 듣는 사람이다.
② 담화란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를 말한다.
③ 담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들으면 말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④ 화자의 의도와 관점은 담화의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숨겨진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들으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02 ㉡의 “교실이 춥지 않아?”라는 말에는 현재 교실이 춥게 느껴진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며 창문을 닫아 달라는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상대는 이러한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담화의 표면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화자의 의도와 어긋나는 답변을 하고 있다.

- 03 ㉠에서 “괜찮아요.”라는 말은 미용실에서 손님이 머리를 손질한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 ㉡에서 “괜찮아요.”는 공을 맞은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선생님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동일한 형식의 말이라도 그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에서 “괜찮아요”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썼다.	☐
동일한 표현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담화의 특징을 바르게 썼다.	☐

- 04 민서는 어제 팔을 다쳐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는 종하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민서는 과자를 먹겠냐는 종하의 권유를 거절하고 있다.
③ 종하는 민서에게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내일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종하가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줄 친구를 오늘까지 모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민서는 자신 대신 재원이 종하가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⑤ 종하는 민서에게 학급 게시판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나, 민서가 학급 게시판 꾸미기 담당인지는 알 수 없다.
- 05 ㉠에는 종하가 민서에게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의도가, ㉡에는 그러한 종하의 부탁을 민서가 거절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바르게 썼다.	☐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바르게 썼다.	☐

- 06 기자는 이 뉴스 보도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의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 의무화 규정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알리고,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관련 법을 실효성 있게 바꾸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를 참고하여 기자가 뉴스 보도를 한 의도를 바르게 썼다.	☐
제시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07 (나)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조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화자의 가치관으로 적절하지 않다.

08 ㉠은 권투 시합이 끝난 직후의 사진으로, 화자는 이를 자신의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여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을 제시한 의도를 추론하여 바르게 썼다.	☐
제시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38~43쪽

- 01 ⑤ 02 ③ 03 산과 들에 쌓인 눈 04 ⑤ 05 ⑤
06 될 수 있을까 07 ④ 08 ① 09 ④ 10 ② 11 ④
12 청소년,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
13 ④ 14 ④ 15 ⑤ 16 ② 17 ④ 18 ③
19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의도이다.
20 ③ 21 ⑤ 22 ③ 23 ② 24 ⑤ 25 ③
26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스스로를 사랑

01 ‘좌아악’은 ‘넓은 범위나 여러 갈래로 흩어져 퍼지는 모양’을 의미하는 ‘좌’를 늘어 쓴 표현으로 시적 허용으로 볼 수 있으나, 쌓여 있던 봄눈이 녹아 없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뿐 이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시는 1~4연에서는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을, 5~8연에서는 그 다음 날 봄눈이 녹고 그 자리에 파란 새싹이 돋아난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에서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로 시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② 이 시는 ‘하얀 이불’, ‘자장가처럼’,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 아이들처럼’, ‘파란 싹들이 / 왁자지껄 / 일어나 있다’와 같이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이른 봄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는 봄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아난 3월의 풍경을 마치 눈에 보이는 듯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02 이 시의 전반부인 1~4연에서는 산과 들에 봄눈이 쌓이고, 골짜기의 물소리가 들리는 풍경에서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나타나며, 후반부인 5~8연에서는 봄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아난 풍경에서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가 나타난다.

03 이 시에서는 ‘산과 들에 쌓인 눈’을 ‘하얀 이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하얗고, 어떠한 대상을 덮는다.’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대상을 이어 주는 말 없이 간접적으로 빗댄 은유에 해당한다.

04 <보기>는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⑤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여 신선함을 주는 것은 비유의 효과이므로 <보기>와 관련이 없다.

05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소망은 전반부에서는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와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간접적인 제시로 표현되다가, 후반부에서는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바람으로 전환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1연과 2연에서는 ‘될 수 있을까’라는 시구가, 3연과 4연에서는 ‘갖고 싶다’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② ‘화안히’는 ‘환히’를 의도적으로 늘어 쓴 표현으로, 이를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③, ④ 이 시는 ‘별’, ‘꽃’과 같은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6 이 시의 1연과 2연에서는 ‘될 수 있을까’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말하는 이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 ‘꽃’, ‘길’과 같은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을 소망하고 있다.

08 이 시에서 ‘별’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힘이 되는 존재 등을 상징하며, 1연에서 말하는 이는 누군가가 외로울 때 그 마음을 비쳐 주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에서 ‘꽃’은 내게 공감해 주는 존재, 나를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상징하며, 2연에서 말하는 이는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안기어 웃어 주는 ‘하얀 들꽃’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3연에서 말하는 이는 외로울 때 부르며 다가오는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고 하였다.

② 이 시의 4연에서 말하는 이는 마음이 어두운 밤에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밝혀 주는 사람을 갖고 싶다고 하였다.

09 이 시에서 ㉡ ‘맑은 눈빛’은 상징이 쓰이지 않은 시어이다. 이 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를 상징하는 시어는 ‘길’이다.

10 이 글은 숫자 ‘열’과 ‘아홉’에 비유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며, 상징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이 글의 예상 독자가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라)에서 마지막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꾸어 글쓴이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이를 것을 모두 이룬 숫자 ‘열’과 아직은 부족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홉’을 대조하고 있다.

11 (다)에서 글쓴이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난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대단한 기록이라도 결국 깨어지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12 ㉠ ‘아홉’은 ‘청소년’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3 ㉠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른’을 ‘열’에, ‘청소년’을 ‘아홉’에 직접 빗대고 있다. <보기>는 ‘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직유이다.

14 (가)는 여학생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와서 남학생이 화가 난 상황이다. 따라서 여학생이 화가 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담화 참여자는 여학생을 기다리는 남학생과 약속 시간에 늦은 여학생이다.

②, ③ 이 담화는 영화가 이미 시작된 시각인 2시 30분에 영화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⑤ 남학생은 여학생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난 상태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에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이러한 남학생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 시각을 알려 주고 있다.

15 (가)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상대방이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상황에 대한 물음이다. 이러한 (가)의 담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형이 동생에게 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학습적인 도움을 주는 상황인 ⑤이다.

16 민서가 종하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팔을 다쳤기 때문이다. 민서가 내일 시간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7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지금 몇 시니?”라고 묻는 말에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은 과자를 먹겠느냐는 종하의 권유에 대한 거절의 의도를 담은 말로, “과자는 고맙지만 사양할게.”라는 의미를 지닌다.

19 ㉠은 민서에게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 기자는 ‘유명무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여 실효성 없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보도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기자는 특정인과의 인터뷰,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을 활용하여 보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②, ④ (가)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기자의 말을 통해 자전거 안전모 문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추론할 수 있다.

⑤ 기자는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대역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의 미착용 실태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21 이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은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 시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자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보도를 한 것이다.

22 이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자전거 이용자와 대역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의 미착용 실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활용하여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③ 전문가가 출판한 서적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23 (가)와 (나)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모를 쓰면 불편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ㄴ. 기자의 말에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은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자전거 대역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와 함께 안전모를 빌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모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이 담화는 설득 담화의 하나인 연설로, 화자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5 (나)에서 화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아니라 열다섯 살에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 최연소로 데뷔 경기를 치르고 우승까지 거두었다고 하였다.

26 이 연설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마음의 근육을 만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01 요약하며 읽기

제재 01

본책 48~53쪽

1 ⑤ 2 ② 3 ② 4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5 ② 6 ① 7 ④ 8 ④ 9 ⑤ 10 ③ 11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12 ④

- 1 이 글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글이다. 1문단에서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2문단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안내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그렇다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뇌 발달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 사례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2023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언급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2 1문단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고 있으며(ㄱ), 2문단에서 여성 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중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ㄷ)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ㄴ, ㄷ 과학 기술의 발달 과정이나 스마트폰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3 ②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걷느라 주변을 미처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다가 눈이나 척추, 손목 등의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 질병을 얻기도 한다고 하였다.

- 4 요약하기의 규칙 중 ‘일반화’란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내용은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추리는 것이다. ㉠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므로 이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으로 일반화하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 5 3문단에서 독서가 뇌의 모든 영역을 고르게 활성화시키고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잘 읽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영의 말은 적절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뇌의 신경 회로가 재편되며, 이때 자주 사용하는 신경 회로는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뇌의 고른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아의 말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민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게임을 할 때는 뇌의 모든 영역 간의 연결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은 강화된다.

진민: 뇌의 영역 중 특정 부위만이 자주 활성화되면 그 부위가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만 발달하고 다른 부위는 약화된다.

- 6 3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이다. 따라서 ㉠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7 4문단은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실험 내용이다. ‘세 번째 집단’이 ‘첫 번째 집단’보다 지도를 그리는 데 짧은 시간이 걸린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집단’은 지도를 그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가장 떨어졌다고 하였다.

② 우리가 전자 기기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첫 번째 집단’은 길을 찾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두 번째 집단’은 종이 지도라는 도구를 활용해 목적지에 도착하였지만, ‘세 번째 집단’은 도구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⑤ 실험 결과, 말로만 설명을 들었던 세 번째 집단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렸다고 하였다.

- 8 ‘환경 심리학 학술지’에 소개된 실험 결과는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전자 기기의 의존도와 뇌의 사고 능력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기기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뇌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9 6문단에서는 스마트폰이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켜 계속 사용하고 싶게 만든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스마트폰 외에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본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과정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스마트폰 외에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5문단에서 기억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수면 중에 학습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창의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② 5문단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수면 중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하여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면 부족이 발생하고, 결국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④ 6문단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크기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므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10 5문단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서 청색광이 많이 방출되는 것은 맞지만, 청색광이 잠을 줄이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하는 것이다.

11 이 글의 구조를 고려할 때 7문단은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간’ 부분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해야 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당부가 나타난 마지막 문장을 선택하여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12 도파민은 주로 즐거움과 관련된 보상을 얻을 때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 어려운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②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도파민은 주로 즐거움과 관련된 보상을 얻을 때 생긴다. 슬픔과 관련된 보상을 얻을 때 발생한다는 내용은 본문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⑤ 도파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같은 크기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것이지, 효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제재 02

본책 54~57쪽

1 ⑤ 2 ② 3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4 ⑤ 5 ⑤ 6 ② 7 ②

8 빠르게 쌓여 가는 옷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1 2문단과 3문단에서 탄소 배출,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 등 패스트 패션에 의한 다양한 환경 오염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환경 오염 사례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패스트 패션과 환경 오염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 고리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알려 주고 있다.

② 3문단에서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7,000리터, 티셔츠 한 장에는 2,700리터, 양말 한 켤레에는 37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패스트 패션이 초래하는 수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패스트 패션을 설명할 때 패스트 푸드와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패스트 푸드가 빠르고 저렴한 음식인 것처럼, 패스트 패션도 빠르게 생산되고 저렴하게 판매되는 옷이라는 공통점을 활용해 독자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일반적인 의류 업체는 계절에 따라 새로운 옷을 소개하는 반면, 패스트 패션 업체는 1~2주 만에 새로운 옷을 생산해 매장에 선보인다는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 패션 업체는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여 상품을 빠르게 회전시킨다는 점도 일반적인 의류 업체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패스트 패션은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여 상품을 빠르게 회전시키므로 패스트 패션 업체는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2문단의 중심 내용은 ‘옷을 생산하는 공정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이다.’의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4 이 글에 따르면 염색 가공 과정에서 8,00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이 화학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섞여 배출된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들이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유황, 비소, 포름알데히드 모두 물에 섞여 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청바지 한 벌과 티셔츠 한 장에 필요한 물의 양은 각각 약 7,000리터, 약 2,700리터이므로,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은 청바지이다.

③ 지구 한편에서는 마실 물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극심한 호우와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탄소 배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 5 4문단에서 의류 쓰레기, 특히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태우면 이산화 탄소를 비롯한 유독 가스를 내뿜어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까지도 오염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류 쓰레기를 태우면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6 5문단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따라 옷을 구매하지 말고(ㄷ),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며(ㄱ), 옷이 필요할 때 새 옷을 사지 않고 중고 의류를 사는 것(ㄴ)도 버려지는 옷을 줄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ㄴ, 글쓴이는 패스트 패션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게 만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옷을 일회용품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행동이다.

ㄷ, 글쓴이는 한 옷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지만, 단순히 수출을 막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고 중고 의류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 7 6문단에 따르면 친환경적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하는 까닭은 소비자들이 패스트 패션 소비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류 업계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친환경적 의류 소비를 유행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패스트 패션처럼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따르는 소비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③ 이 글에서는 패스트 패션 소비를 지양하는 것이 개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의식이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루어 내기에 어려운 일'이라는 점 자체가 친환경적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가격과 품질 외에도 환경 보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할 뿐, 가격과 품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에서 소비자가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나 제작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소 노력 등을 고려하며 옷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러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8 7문단의 마지막 문장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빠르게 쌓여가는 옷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지금,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문장을 선택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다.

독집해 예상 문제

본책 58~61쪽

- 01 ③ 02 ③ 03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04 ① 05 ① 06 ④ 07 '면'과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로 나눌 수 있으며, 분류 기준은 합성 섬유의 여부이다. 08 ② 09 ③ 10 ① 11 옷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된다. 12 ② 13 ③ 14 ④ 15 ③

-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설명하는 글을 요약할 때에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야 한다. 주장과 근거 중심의 요약은 주장하는 글의 요약 방법이다.

- 02 <보기>의 자료는 출처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은 조사 결과이다. 이를 인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 03 (나)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눈·척추·손목 등의 신체 부위에 질병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을 심각한 부작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 04 (다)에서 반복되는 내용, 덜 중요한 정보, 예를 든 내용을 '삭제'하여 요약한 것이다.

- 05 (나)에서 섬유를 제조하고 가공할 때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고(ㄱ),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화된다고 하였다(ㄷ).

06 (가)에서 패스트 패션 업체는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최신 유행이 반영된 옷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패스트 패션의 이점을 밝히고 있다.

07 (나)에서 합성 섬유는 예로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합성 섬유를 제조할 때'와 '면섬유를 제조할 때'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면섬유'는 '합성 섬유'가 아님이 드러난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섬유들은 '면'과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분류 기준은 '합성 섬유의 여부'이다.

08 (가)에서 패스트 패션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 글에서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므로, 패스트 패션의 장점을 중심으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린다는 미정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우리가 입는 옷의 원단 중 합성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70퍼센트 이상이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패스트 패션 산업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극심한 호우와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④ 패스트 패션이 이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을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가)의 중심 내용이다.

⑤ (나)에서 합성 섬유를 제조할 때에는 면섬유를 제조할 때보다 3배 가까이 되는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다만, 글에서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반응은 적절하다.

09 (나)에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태우는 행위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독 가스를 내뿜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옷을 태우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옷을 태우는 행위도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유황이나 비소 등은 8,00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발생되어 물을 오염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의류 쓰레기 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주변의 토양과 수질까지 오염시킨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약 7,000리터로, 한 사람이 10.5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10 (가)에서는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을, (나)에서는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옷의 양을 각각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수치들은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11 (가)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의 심각성을, (나)는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옷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된다.'로 요약할 수 있다.

12 (다)에서는 자신의 의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는 옷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캠페인을 실천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13 이 글은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나기'라고 부르게 된 유래에 관한 이야기로, 스님과 농부의 일화를 통해 '소나기'라는 단어가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특정 단어의 유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는 데 있다.

14 이 글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두고 내기를 제안한 인물은 스님이 아닌 농부이다. 농부는 스님의 말에 "그럼 어디 내기를 해 봅시다. 스님 말대로 해 지기 전에 비가 오면 내 저 소를 드리지요."라고 말하며 스님에게 내기를 제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농부는 농부대로 오랜 경험이 있어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 없다고 믿었다.

② 이 글에서 농부는 비가 온다는 스님의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생각하였다.

③ 이 글에서 스님은 옷이 눅눅해지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고 농부에게 말하였다.

⑤ 이 글에서 농부는 내기에서 진 것보다 비가 오는 게 좋아서 소를 잃게 됐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싱글벙글하였다.

15 스님은 ㉠ '장삼'을 만졌을 때 몹시 눅눅함을 느껴 공기 중에 물기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근거로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 오답 풀이 | ① 스님은 ㉠ '장삼'이 눅눅해지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눅눅함은 습기가 많다는 의미이며, 날씨가 춥다는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② (나)에서 ㉠ '장삼'은 스님이 평소엔 입고 다니는 옷이지만, 빨래를 자주 하지 않아 늘 땀에 젖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빨래를 자주 해서 깨끗하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④ 농부와 스님이 내기를 하게 된 계기는 날씨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 농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스님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 '소'는 내기의 대상이었을 뿐, 내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⑤ ㉢ '소'는 농부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로, 농부는 농사꾼에게 귀중한 소를 걸 만큼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

참고 자료

설화의 개념과 종류

설화란 옛날부터 특정한 집단이나 민족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있다.

	신화	전설	민담
성격	신성성, 위엄성	신빙성, 구체성	흥미성, 교훈성
주인공	신적 존재로 초능력을 발휘함	비범한 인간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좌절함	평범한 인간으로 운명을 개척함
배경	아득한 옛날, 신성한 장소	구체적 시간과 장소	막연한 시간과 장소
증거물	포괄적	개별적	없음
전승 범위	민족적	지역적	범세계적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62~63쪽

01 나, 다 02 ④ 03 ④ 04 ① 05 ㉠ 이야기 글 ㉡ 시간

01 수정의 읽기 목적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나). 이를 위해 (나)를 요약하면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뇌의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다).

| 오답 풀이 | ㄱ. 수정의 읽기 목적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는 스마트폰 사용이 뇌의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을 뿐, 수정이 궁금해하는 '수면 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나)에 있다. 따라서 (가)를 요약하는 것만으로는 수정의 읽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ㄴ. 수정의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는 추가 자료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부족을 유발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뇌의 변화를 다룬 (나)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수정의 읽기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
<보기>에 제시된 선택지가 수정의 읽기 목적과 적절하게 연결되는지 바르게 판단하였다.	☐

02 (가)~(다)에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의 사고 능력, 기억력, 창의력, 그리고 보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전두엽의 운동 및 언어 발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다. (가)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사고 능력(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언어 발성이나 운동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측이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충분한 수면이 기억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전두엽은 학습과 기억 기능을 담당하므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추측은 적절하다.

② (다)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즐거움과 보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중뇌는 보상과 쾌락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때 중뇌가 활성화된다는 추측은 적절하다.

③ 전두엽은 언어 이해와 기억 기능을 담당하므로, (가)의 실험에서 세 번째 집단이 말로 설명을 들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다.

⑤ (나)에서 스마트폰의 청색광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창의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학습과 기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두엽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다.

03 (가)에서는 의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와 (나)에서는 패스트 패션이 의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④는 의류 생산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요약이다.

04 <보기>는 요약하기 규칙 중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A]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인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다)는 글의 종류 중 ㉠ '이야기 글'에 해당한다. 이야기 글을 요약할 때는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에 따른 글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글은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썼다.	☐
글의 종류에 따른 요약하기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썼다.	☐



참고 자료

이야기 글의 구조에 따른 요약 방법

-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전개될 때
예) 황순원, 「소나기」
-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의 변화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할 때
예) 질 베른, 「80일간의 세계 일주」
- 사건 전개를 중심으로 요약하기: 각 사건이 앞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며 전개될 때
예) 헤르만 헤세, 「공작 나방」
- 인물의 업적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전기문이나 자서전처럼 인물의 업적을 중심으로 다룰 때
예) 「홍길동전」, 「박씨부인전」
-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단계별로 문제가 제시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구조일 때
예) 현덕, 「하늘은 맑건만」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본책 66~75쪽

활동 학습

- 1 ② 2 ④ 3 ② 4 ① 5 ⑤ 6 ④ 7 너비아
니의 역사와 유래 8 ④ 9 ③ 10 ③ 11 ③ 12 ②
13 ② 14 ④

-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은 일반적으로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 및 고쳐쓰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 2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 및 순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 3 서연은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목적(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 소개), 글의 주제(너비아니의 가치), 글의 종류(설명하는 글), 예상 독자(우리 학교 학생들)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글의 분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 4 ‘쓰기 윤리’란 과장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 없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5 (가)의 ‘설문 방법’을 보면 해당 설문은 복수 응답을 허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300명이지만, 설문 조사 결과에서 응답 수가 300명이 넘는 것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답 수가 응답자 수보다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설문 조사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이다.
② 우리 나라 전통 음식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 조사이다.
③ 서연이 소속된 ○○ 중학교 전통 요리 동아리에서 실시하였다.
④ 설문 조사 결과에서 비빔밥 189명, 너비아니는 26명, 신선로는 13명으로, 비빔밥에 비해 너비아니와 신선로의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 6 (나)는 너비아니에 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중 요리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한 자료로, 서연이 찾은 책에는 너비아니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요리 순서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나)에 따르면 고기를 굽기에 앞서 고기에 한 장씩 양념장을 끼얹은 다음, 함께 주물러 재워 두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기를 굽기 전에 먼저 양념장에 재워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양념장에 잿가루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잿가루는 고기를 구운 후 뿌리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② 소고기는 등심이나 안심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등심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③ 고기를 뒤집으며 구워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⑤ 소고기를 결의 반대로 저미는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7 자료 (라)는 너비아니의 유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너비아니의 역사와 유래에 관한 내용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다.

8 자료 (바)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으로, 너비아니의 요리 순서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데 가장 적합하다. 자료 (나)에서는 너비아니의 요리 순서를 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바)와 (나)를 통합하여 활용하면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9 '중간 3'에서는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의 영양 정보가 담긴 자료를 활용하여 너비아니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이 글에 따르면 너비아니 양념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장은 된장 양념에 비해 향이 강하지 않아 대중의 입맛을 두루 만족시킬 만하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서 때에 따라 완성된 너비아니에 갖가루를 뿌릴 수 있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너비아니는 너뽏너뽏 써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서 최근에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는 철분, 아연, 단백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신체 발달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고기에 들어 있는 비타민B는 우리 몸의 피로를 해소해 주며 활발한 두뇌 활동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11 ③에는 너비아니가 어떤 음식인지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너비아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①의 “우리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 소개”라는 제목은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다만, 이러한 평이한 제목보다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②의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너비아니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관심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너비아니를 소개하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다.

④ ⑥의 ‘이에 대해 ~ 목소리도 있다.’라는 문장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 후 문단의 내용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⑦의 출처 부분에는 책의 제목 외에도 참고한 자료를 추가하여 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12 ⑤의 뒤에는 너비아니가 다양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 건강에 좋으며, 대중의 입맛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⑤의 앞뒤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문장으로는, ‘너비아니가 가치 있는 음식인 까닭은 무엇일까?’가 적절하다. 이 질문은 너비아니의 영양적 가치와 너비아니를 먹어 보자는 권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참고 자료

고쳐쓰기의 유형

문장 수준	상투어, 무의미어 등의 삭제, 문장 구조의 정확성 확인, 문장 구성 요소 간의 호응 관계 확인, 피동문의 적절성 검토 등
문단 수준	긴 문단 구분, 아이디어 배열 순서 조정, 그림 및 도표 삽입, 접속어나 지시어 첨가 또는 조정 등
글 수준	불필요한 부분들의 삭제, 글의 제목이나 소제목 첨가 혹은 조정, 주요 아이디어의 위치 조정 등

13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빠짐없이 명확히 밝히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14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독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 전달의 글에서는 주장의 설득력보다는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집게 예상 문제

본책 76~79쪽

- 01 ③ 02 ⑤ 03 체계적인 글 쓰기를 통해 독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① 05 ③ 06 ④ 07 (나): 너비아니의 재료 및 요리 순서 (다): 너비아니의 역사와 유래 08 ① 09 ② 10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 11 ④ 12 ④ 13 ②
 14 ① 15 ⑤ 16 ② 17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 01 서연이 쓰려는 글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소개하기 위함이며(ㄹ), 글의 예상 독자는 교내 소식지를 읽는 ○○ 중학교 학생들이다(ㄷ).

| 오답 풀이 | ㄱ. 서연이 쓰려는 글의 종류는 (나)의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연은 교내 소식지를 읽는 ○○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소개하기 위해 너비아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ㄴ. 서연은 (나)의 4에서 너비아니의 유래와 만드는 방법, 가치 등을 소개한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주제는 '너비아니의 가치'이다.

- 02 (나)에서 서연은 학교 소식지에 실을 글의 독자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언급했을 뿐, 동아리 부원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글의 목적, 독자, 소재, 글에 담을 정보, 글의 종류 등을 정하는 단계인 '계획하기'에 해당한다.

② (나)의 4에서 서연은 너비아니의 유래, 만드는 방법, 가치 등을 소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③ (나)의 2와 3에서 서연은 예상 독자인 학교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음식을 소재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1에서 서연은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2에서 학교 소식지에 글을 실을 것이라고 하였다.

- 03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전 글쓰기 과정을 미리 살펴보면 체계적인 글 쓰기를 통해 독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4 글쓰기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단계를 거친 후에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5 (가)~(마)에는 '너비아니'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글쓰기 단계는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 생성하기'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 단계에 해당한다.

④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⑤ 계획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 06 자료 (라)는 '궁중 음식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체험'에 관한 기사이다. 궁중 음식의 하나로 너비아니가 소개되었지만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글을 쓸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7 (나)는 '너비아니의 재료 및 요리 순서'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고, (다)는 '너비아니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소개하는 백과사전 자료이다.

- 08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조리법은 순서도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역사적 배경은 도표보다는 문자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개인적 의견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설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09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 및 순서를 정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글의 뼈대를 만드는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적절한 항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 오답 풀이 | ①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작성한다.

③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의 순서대로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제의 특성에 따라 논리적 순서나 중요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개요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⑤ 마인드맵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유용하지만, 개요는 이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글의 구조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

- 10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에서 개요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 이후에는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 과정이 진행된다.

- 11 '중간-3'의 내용은 이미 너비아니가 지닌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 음식'이 먼저 제시되어 너비아니의 건강적 가치를 강조하고, 그다음으로 '나.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맛'을 배치하여 너비아니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너비아니라는 이름의 유래'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간-1'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중간-1-나'는 너비아니가 인기 있는 이유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역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중간-2-나'에서 너비아니를 활용한 요리를 소개하는 내용은 '중간-4'의 내용(너비아니의 변신)과 더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중간-4-가'에서 다루는 '너비아니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조리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간-2'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 12 <보기>는 너비아니의 양념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장이 맵거나 향이 강하지 않아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는 개요 중 '중간-3-나'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 13 '너비아니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는 백과사전의 내용은 너비아니의 과거, 즉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너비아니의 변신'은 너비아니의 현재, 혹은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너비아니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는 백과사전을 통해 '너비아니의 변신'을 설명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내용 조직하기의 방법

다발 짓기	생성한 아이디어를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활동으로,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이디어 조직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됨.
마인드맵 만들기	중심 개념에서부터 관련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나가는 활동으로, 예로 '마인드맵'이 있음.
얼개 짜기	얼개(개요) 짜기는 쓰려는 글의 구조에 맞게 글로 쓸 내용을 항목화하여 적고, 점검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활동으로 전통적으로 해 왔던 방법임.

- 14 수집한 정보와 개요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표,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한다.

- 15 ㉔의 앞에서는 최근 너비아니를 기존의 방법으로만 즐기 않고 다양하게 변형하여 즐기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㉔의 뒤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내용의 ㉔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은은한 전통의 맛, 너도 아니? 너비아니'로 수정하여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② 도표를 통해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 주어 너비아니를 소개하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밝힐 수 있다.

③ '소고기를 얇고 넓게 저며서 양념장에 재운 뒤 석쇠에 구운 음식으로'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너비아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④ '너비아니가 가치 있는 음식인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너비아니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 16 너비아니는 궁중 음식을 주로 소개한 『이조궁정요리통고』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 궁중 음식의 하나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너비아니는 고기를 너뽏너뽏 써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였다.

③ 최근에는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활용한 너비아니 덮밥과 너비아니를 넣은 김밥 등 다양한 요리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였다.

④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에 들어 있는 비타민B는 우리 몸의 피로를 해소해 준다고 하였다.

- ⑤ 너비아니에 대한 기록은 1800년대 말 음식의 조리법을 소개한 『시의전서』에 최초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 17 쓰기 윤리에는 '과장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 없이 객관적인 정보 전달하기', '출처 밝히기' 등이 포함된다. 이 글은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쓰기 윤리를 고려하여 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고난도 읽/심화 문제

본책 80~81쪽

- 01 ⑤ 02 ③ 03 (가): 처음, (나): 중간-3 04 (1) 한국의 전통 음식 너비아니를 소개하려고 함. (2) ○○ 중학교 학생들 (3) 너비아니의 가치 (4) 설명하는 글 05 ④ 06 ⑤

- 01 설문 조사를 실시한 주체는 ○○ 중학교 전통 요리 동아리이며, 이들은 전통 음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설문 조사의 항목에 '신선로'를 포함시킨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신선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설문 조사는 20○○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적절하다.

③, ④ 설문 방법은 모바일로 이루어지며, 복수 응답 가능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 02 (나)는 소고기가 아이들의 건강에 좋다는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고, <보기>는 소고기가 많은 영양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나)와 <보기>는 모두 소고기가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소고기에 함유된 비타민을 소개하지 않았다.

② (나)도 철분, 아연, 단백질 등 소고기의 영양 정보를 언급하였다.

④ (나)는 소고기가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하지만, 어린이에게만 유익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⑤ (나)는 소를 키우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03 (가)는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의 결과로, 처음 부분인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까닭'에서 너비아니에 대해 소개하는 이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의 영양 정보를 소개하는 기사이다. 해당 자료는 '너비아니의 가치'에서 너비아니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라는 점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다)에 서 찾아 정확하게 썼다.	☐
(가)와 (나)의 순서로 썼다.	☐

- 04 서연이 글을 쓴 목적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 글의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 글의 주제는 ‘너비아니의 가치’이며, 글의 종류는 너비아니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평가 기준	확인 ☒
(1)과 (2)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3)과 (4)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 05 시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다)에서는 너비아니의 조리법을 설명하고 있다. 조리 과정은 글로만 전달하기보다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ㄱ). (라)에서는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소개되므로,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음식의 형태와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ㄴ). (가)에서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이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그래프를 제시하면 독자가 한눈에 설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ㄷ).

| 오답 풀이 | ㄷ. 이 글에 『시의전서』와 『이조궁정요리통고』를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책의 내용을 비교하는 도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너비아니가 맛과 영양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점을 제시하고, 너비아니를 먹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82~87쪽

- 01 ④ 02 ② 03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 04 ⑤ 05 ② 06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도 심각한 문제이다.
07 ② 08 ④ 09 ① 10 ① 11 ③ 12 그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 없다고 믿었다. 13 ④ 14 ③ 15 ③ 16 ① 17 ④ 18 ③
19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기록한다. 20 ④ 21 ④ 22 이
에 대해 너비아니를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글의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의 처음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지만,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화제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중학생 439,655명 중 90,730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다)와 (라)에서 뇌의 발달 과정, 신경 회로의 변화, 청색광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정의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다)에서 독서하는 사람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뇌 발달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02 이 글에 따르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깨어 있는 동안 학습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여러 정보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연결되면서 창의력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기억력과 창의력이 높아질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청색광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한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은 강화되는 반면, 다른 신경 회로 간의 연결은 약화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루는 세대에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03 (다)에서 덜 중요한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 예시 등은 ‘삭제’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중심 내용을 찾아 요약하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이다.

- 04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켜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라)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을 요약할 때 꼭 필요하다.

- 05 윤이는 (나)를 통해 옷을 생산할 때 합성 섬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준은 (가)를 통해 패스트 패션의 개념과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 06 (다)에서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중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언급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에 해당한다.

- 07 ㉠ ‘일반적인 의류 업체’와 ㉡ ‘패스트 패션 업체’ 모두 소비자에게 새로운 옷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ㄱ). ㉢ ‘패스트

패션 업체'는 1~2주 만에 새로운 옷을 생산하여 매장에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ㄷ).

| 오답 풀이 | ㄴ. 패스트 패션을 통해 소비자는 최신 유행이 반영된 옷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최신 유행이 반영된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

ㄷ. ㉠은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여 상품을 빠르게 회전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08 (나)에서 섬유를 제조하고 가공할 때에는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였다.

09 (가)의 중심 내용은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므로,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제시된 내용은 (나)의 중심 문장인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해서 요약한 것이다.

11 (다)는 이야기 글이므로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농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13 서연은 교내 소식지를 읽는 ○○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소개하기 위해 너비아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 너비아니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블로그 글은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14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글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글을 쓸 계획을 세운다. 이 글에서 서연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 독자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주제와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5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한 ㉢ '개요'를 작성하고 자료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다.

16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맞지만, 수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수집한 정보 중 글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17 (라)에 너비아니와 관련한 역사적 기록이 제시되어 있지만, 너비아니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너비아니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는 (라)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18 (라)는 너비아니의 역사와 유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너비아니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라는 점을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다(ㄷ). (마)는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에 관한 기사이다. 궁중 음식의 하나로 너비아니가 소개되지만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글을 쓸 때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ㄷ).

| 오답 풀이 | ㄱ. (가)의 설문 조사 결과를 글의 처음 부분에서 자료로 활용하여 글의 중심 소재인 너비아니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글의 목적을 소개할 수 있다.

ㄴ.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찾아 추가할 수 있으나 (다)는 소고기의 영양 정보에 관한 기사이므로 (다)가 아닌 (나)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기록해야 한다.

20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는 처음 계획한 내용에서 벗어나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주제와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21 이 글은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그 가치를 되새겨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너비아니의 가치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 '은은한 전통의 맛, 너도 아니? 너비아니'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 ㉢, ㉤ 모두 이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제목이다.

22 '이에 대해 ~ 목소리도 있다.'는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세상을 담는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01 품사로 빛어낸 세상

활동 학습

본책 92~105쪽

1 ② 2 ③ 3 현, 깨끗이 4 ② 5 ③ 6 ③ 7 ④
8 ① 9 내리다, 눅다, 출발하다 10 ④ 11 ② 12 ⑤
13 ③ 14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15 ④ 16 모
든, 매우 17 ③ 18 ① 19 ④ 20 어머 21 ⑤
22 ④ 23 모든 /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데 뒤에 오
는 '수놓았다'는 용언에 해당하므로 쓰임이 어색하다.

- 1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
어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 놓은 단어의 무리이다.
|오답 풀이| 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③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④ 우리말 품사는 분류할 때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가지 기준으
로 나눌 수 있다.
⑤ 형태에 따라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로 나눌 수 있다.
- 2 ㉠의 '바다', '구름'은 명사, '서넛'은 수사, '훨씬'은 부사로, 모
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의 '배
우다', '흔들리다'는 동사, '기쁘다', '푸르다'는 형용사로 용언에
속하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3 <보기>의 문장에서 '현'은 뒤에 나오는 명사 '운동화'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깨끗이'는 동사 '빨았다(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
할을 하는 단어는 '현'과 '깨끗이'이다.
- 4 '새'는 뒤에 나오는 명사 '책'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
이다. '정류장', '책', '여자', '말'은 명사로, 문장에서 대상의 이
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5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며, 홀로 쓰
이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①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②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다.
④ 체언에 속하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조사는 관계
언에 속한다.
⑤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역
할을 하는 것은 용언이다.

- 6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지수'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
고, 나머지는 모두 사람,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7 '한'은 뒤에 오는 의존 명사 '번'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셋', ②의 '첫째', '둘째', ③의 '둘', ⑤의 '다섯'
이 수사에 해당한다.
- 8 동사 '눕다'는 어간 '눕-'과 어미 '-다'로, 동사 '숨다'는 어간
'숨-'과 어미 '-다'로, 형용사 '맑다'는 어간 '맑-'과 어미 '-다'
로 나뉜다.
|오답 풀이| ②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③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
은 체언이다.
④ '눕다'와 '숨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맑
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⑤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
는 독립언이다.
- 9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는 동사이다. 주어
진 문장에서는 '내려서', '눅으면', '출발하자'가 동사에 해당하
며, 이 동사의 기본형은 각각 '내리다', '눅다', '출발하다'이다.
한편 주어진 문장의 '미끄러우니(미끄럽다)'는 형용사이다.
- 10 형용사에는 현재형 어미 '-는다/-다', 명령형 어미 '-어
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없다. ④의 '재미있어
라'는 형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
하여 활용할 수 없다.
- 11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는 '곳' 뒤에 붙어 있는 '에서'와 '풍경' 뒤
에 붙어 있는 '이로', 총 2개이다.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므로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에 붙은 '-은'은 조사가 아니다.
- 12 <보기>의 문장에서 조사 '가'와 결합한 체언은 '꽃는다'의 주체
가 되고, 조사 '를'과 결합한 체언은 '꽃는다'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조사는 문장에서 앞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과 ㉡은 모두 조사이지만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은 서술격 조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예외적으
로 형태가 변한다.
|오답 풀이| ① ㉠, ㉡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② ㉠, ㉡은 모두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쓰인다.
④ ㉠, ㉡은 모두 문장에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
다는 공통된 의미를 갖는다.
⑤ ㉠은 앞의 명사 '할아버지'가 문장에서 주어의 자격을 가지
게 하고, ㉡은 앞의 명사 '일기장'이 문장에서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14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만'과 '도'는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15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어 문장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식언에 속하는 품사로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으며,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주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인다.

| 오답 풀이 | ① 수식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에 해당한다.

② 수식언 중에서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며,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③ 수식언은 주로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인다.

⑤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16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제시된 문장에서 '모든'은 체언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매우'는 용언 '감동했어(감동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7 '무슨'은 뒤에 오는 체언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사이다.

18 독립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로, 감탄사가 이에 해당한다. 제시된 문장에서 ㉠ '네'는 뒷사람의 말에 대한 대답의 의미를 지니는 감탄사이다.

19 밑줄 친 '아차'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라는 의미의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며,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보기>의 문장에서 사용된 감탄사는 '어머'로, '어머'는 놀람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21 '아니요'는 뒷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로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에 해당한다.

22 '무엇'은 명사가 아니라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23 '모든'은 관형사로 문장에서 주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제시된 문장에서 '모든' 뒤에 오는 '수놓았다(수놓다)'의 품사는 동사로, 용언에 해당하므로 관형사가 아니라 부사의 수식이 받는 것이 적절하다.

독집계 예상문제

본책 106~109쪽

- 01 ④ 02 ④ 03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04 ④ 05 ① 06 ⑤ 07 ③ 08 ⑤
09 ① 10 ① 11 ① 12 ④ 13 '착하자'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하여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보자.'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4 ③ 15 ③ 16 ⑤ 17 ③ 18 ① 19 ⑤ 20 ②
21 ③ 22 감탄사, 부사, 대명사, 조사, 명사, 조사, 수사, 동사
23 ④ 24 ② 25 ④ 26 ④ 27 ④

01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어 묶어 놓은 단어의 무리이다. 품사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는 것만으로 단어의 의미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는 없다.

02 제시된 문장에 쓰인 단어들을 기능에 따라 체언('신발'), 용언('산(사다)', '잃어버렸네(잃어버리다)'), 수식언('새로'), 관계언('을'), 독립언('앗')으로 분류할 수 있다.

03 '이것', '내'는 대명사, '이', '가'는 조사, '바로', '그토록'은 부사, '열쇠'는 명사로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반면, '찾던'은 동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모두 문장에서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보기>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 것이다.

04 <보기>는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셋'은 수사, '그대'는 대명사, '고양이'는 명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가방(명사), 이것(대명사), 과연(부사)

② 첫(관형사), 우정(명사), 천천히(부사)

③ 안경(명사), 서넛(수사), 드디어(부사)

⑤ 힘껏(부사), 흐르다(동사), 엉금엉금(부사)

05 '희망', '연필', '우정', '무지개'는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06 '이것', '뭘', '저', '저기'는 모두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고, '할머니'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07 밑줄 친 단어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셋',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따라서 '첫째'와 '셋'을 모두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오고(오다)', '부니(불다)'는 동사, '쌀쌀하다'는 형용사로 모두 용언에 해당한다. 체언 뒤에 놓여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는 조사이다.

09 용언의 어간에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고 한다. ‘등근’은 ‘등글다’, ‘먹었나’는 ‘먹다’, ‘우셨다’는 ‘울다’, ‘몰랐다’는 ‘모르다’, ‘느꼈나’는 ‘느끼다’가 기본형이다.

10 ㉠ ‘참고(참다)’와 ㉡ ‘견디면(견디다)’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 ‘분명히’는 뒤에 오는 동사 ‘좋아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1 ‘새로운(새롭다)’와 ‘필요하다’는 모두 동사가 아닌 형용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의 ‘더하면(더하다)’, ③의 ‘깨우셨다(깨우다)’, ④의 ‘나는(나다)’와 ‘좋아한다(좋아하다)’, ⑤의 ‘가서(가다)’와 ‘빌렸다(빌리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12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이다. ‘치웠다(치우다)’는 ‘청소하거나 정리하여 비우다.’라는 의미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13 제시된 문장의 ‘착하자(착하다)’는 형용사로,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어간에 현재형 어미 ‘-는다/ㄴ다’,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다.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조사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 ‘이’, ‘을’, ‘께서’로 총 4개가 쓰였다.

15 ‘가’와 ‘를’을 서로 바꾸면 ‘좋아하다’의 주체와 대상이 바뀌게 되므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16 ㉠은 뒤에 오는 명사 ‘꽃’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은 뒤에 오는 동사 ‘좋아하세요(좋아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관형사, ㉡은 부사이다.
② ㉠, ㉡은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③ ㉠, ㉡은 문장에서 꾸밈을 받는 대상의 앞에 놓인다.
④ ㉠, ㉡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단어 간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이다.

17 ‘온갖’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온갖’ 뒤에 있는 ‘찾아왔다(찾아오다)’는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 ‘비로소’, ‘마침내’ 등으로 고쳐야 한다.

18 ‘هن’은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 ‘구두’를 꾸며 준다.

| 오답 풀이 | ②의 ‘멀리’, ③의 ‘결국’, ④의 ‘강력히’, ⑤의 ‘쿵쿵’은 모두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19 부사는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품사이다. ‘갑작’은 ‘갑자기 놀라는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로, 뒤에 오는 동사 ‘놀라(놀라다)’를 꾸며 준다.

20 ‘야’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인 감탄사에 속하는 단어이다.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감탄사가 아니라 수식언 중에서도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21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로, 제시된 대화에서는 ‘여보세요’, ‘응’, ‘앗’, ‘이런’, ‘그래’가 감탄사에 해당한다.

22 제시된 문장에 쓰인 단어의 품사를 순서대로 밝혀 쓰면, 감탄사(‘앗!’), 부사(‘이따가’), 대명사(‘너’), 조사(‘에게’), 명사(‘책’), 조사(‘을’), 수사(‘하나’), 동사(‘줄게’)이다.

23 ‘즐겁다’, ‘느리다’, ‘따뜻하다’는 모두 형용사로,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결코(부사), 어떤(관형사), 비로소(부사)
② 열흘(명사), 두셋(수사), 멈추다(동사)
③ 기어코(부사), 저곳(대명사), 아무렴(감탄사)
⑤ 가늘다(형용사), 잠들다(동사), 좋아하다(동사)

24 ‘유난히’는 ‘언행이나 상태가 보통과 아주 다르게.’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25 ‘가장’은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라는 의미의 부사로, 뒤에 오는 형용사 ‘가까운(가깝다)’을 꾸며 준다.

| 오답 풀이 | ① ‘빠르다’는 형용사, ② ‘우아’는 감탄사, ③ ‘도서관’은 명사, ⑤ ‘나’는 대명사이다.

26 제시된 문장에서 명사는 ‘재희’, ‘오후’, ‘잠’ 총 3개가 쓰였다(ㄱ). 제시된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품사는 용언으로 ‘피곤해서(피곤하다)’(형용사), ‘갔다(자다)’(동사) 총 2개가 쓰였다(ㄴ). ‘는’, ‘만’은 조사로, 주로 체언 뒤에 붙어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ㄷ).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며,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ㄴ. 제시된 문장에서 수식언은 ‘너무’, ‘내내’(부사)의 2개가 쓰였다.

ㄷ. 제시된 문장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즉 조사는 ‘와’, ‘는’, ‘만’으로 총 3개가 쓰였다.

27 ‘천천히’는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라는 의미의 부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01 ③ 02 ㉠, ㉡: 체언, ㉢: 용언, ㉣: 관계언, ㉤: 독립언, ㉥: 수식언 03 ④ 04 ㉠은 영화관, ㉢은 지도를 가리키고, ㉠과 ㉢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05 ① 06 ② 07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똑똑하게 대처해라.'로 고쳐 써야 한다. '똑똑하다'는 형용사로 명령형 어미 '-아라'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08 ④ 09 ③ 10 ④ 11 ③ 12 ⑤ 13 ④

01 '첫'은 관형사, '의자'는 명사, '에서'는 조사로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반면 '맑다'는 형용사, '돕다'는 동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한 것이다.

02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누나', ㉡ '우리'는 체언, ㉢ '받은(받다)'은 용언, ㉣ '에서'는 관계언, ㉤ '저런'은 독립언, ㉥ '아직'은 수식언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기능에 따라 단어를 바르게 분류하여 썼다.	☐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의 명칭으로 알맞게 썼다.	☐

03 '모두'는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쓰일 수 있는 단어이다. ①, ②, ③, ⑤에서 '모두'는 뒤에 조사가 결합된 명사로 쓰였으며 뒤에 오는 단어를 수식하지 않는다. 반면, ④에서 '모두'는 뒤에 오는 용언 '합하면(합하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로 쓰였다.

04 ㉠과 ㉢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은 앞에 나온 '영화관'을, ㉢은 '지도'를 가리킨다.

평가 기준	확인 ☒
㉠, ㉢이 가리키는 대상을 바르게 썼다.	☐
㉠, ㉢이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그 품사를 밝히고, 공통점을 바르게 썼다.	☐

05 단어가 지닌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 체언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분류할 수 있다.

06 밑줄 친 '보면(보다)'과 '알(알다)'은 동사이다. 따라서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문장에서 주체의 움직임 등을 서술하는 용언에 속하고,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하면서 형태가 변한다.

| 오답 풀이 | ㉢.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품사는 체언이다. ㉡.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로,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동사에 해당한다.

07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어간에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가 결합할 수 없다. '똑똑해라'는 형용사 '똑똑하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가 붙은 형태이므로, '똑똑하게 대처해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을 찾고, '대처하다'를 활용하여 바르게 고쳐 썼다.	☐
형용사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장을 고쳐 쓴 까닭을 썼다.	☐

08 밑줄 친 '가', '를', '까지', '이다'는 모두 조사이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 단어로 인정한다.

09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수식언은 관형사에 해당하는 '옛', '모든', 부사에 해당하는 '여전히', '매우'이다. '-어서'는 용언 '있다'가 활용하면서 어간에 붙은 어미이고, '을'은 조사이다.

10 '가장'은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계.'라는 의미의 부사로, 뒤에 오는 부사 '높이'를 꾸며 주고 있다.

11 제시된 문장에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독립언 '와'가 사용되었다. ② 뒤에 오는 명사 '송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 '한'이 사용되었다. ④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 주는 단어는 '에', '가' 2개이다. 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아름다운(아름답다)', '피었다(피다)' 2개이다.

12 제시된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인 '관형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문장에 쓰인 품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대명사), '는'(조사), '항상'(부사), '우리'(대명사), '를'(조사), '배려하고'(동사), '너그럽게'(형용사), '감싼다'(동사)이다.

13 '세'는 각각 뒤에 오는 의존 명사 '명'과 '개'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앞의 '이'는 조사이고, 뒤의 '이'는 명사이다. ② 앞의 '우리'는 대명사이고, 뒤의 '우리'는 명사이다. ③ 앞의 '열'은 관형사이고, 뒤의 '열'은 명사이다. ⑤ 앞의 '새'는 명사이고, 뒤의 '새'는 관형사이다.

12 상호 작용적 매체와 소통

활동 학습

본책 114~121쪽

- 1 ③ 2 그림말 3 ① 4 '@' 기호를 활용하면 특정 사람이 나 단체 등의 계정을 언급하거나 연결할 수 있다. 5 ⑤ 6 ①
7 ⑤ 8 ③ 9 ⑤ 10 ④ 11 온라인 대화방(일대일)
12 ⑤ 13 ② 14 ⑤

- 1 게시 글의 조회 수나 추천 수 등을 통해 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누리집의 특성이다.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 2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문자와 함께 그림으로 된 그림말을 전송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3 제시된 자료는 정민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로, 정민이 찾고 있는 강아지를 목격한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고 있다. 정민은 해시태그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게시물에 접근하여 댓글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료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이 자료에서 정민은 '@' 기호를 활용하여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계정을 연결하고 있다. 또한 댓글에서 은빛은 '@' 기호를 활용해 다른 친구의 계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 기호를 활용하면 특정 사람이나 단체의 계정을 언급하거나 연결할 수 있다.
- 5 정민이 찾은 누리집의 게시 글은 ○○ 강아지 쉼터 유기견 보호실을 청소하고 관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다. 따라서 이 게시 글의 주된 목적은 유기견 쉼터 자원봉사자 모집 공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6 누리집은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제공하는 매체이다. 누리집의 게시 글은 경우에 따라 익명으로 게시할 수도 있지만, 제시된 자료에서는 '○○ 강아지 쉼터', '정민'으로 작성자 및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7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소통 목적이나 소통 공간의 특성 등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 간의 소통 방식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8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대중매체 중 하나로, 상호 작용적 매체와 다르게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뚜렷하고 주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 9 (가)는 누리집, (나)는 온라인 대화방이다. (나)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대화방의 유형이 일대일 대화방이 아닌 단체 대화방이다.
- 10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사용할 때에는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해시태그는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게시물에 대한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 오답 풀이 |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개인 계정에 올리는 글은 비교적 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므로 격식을 갖춘 표현이 아니라 'ㅎㅎ', 'ㄱㄱ'과 같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항목별로 게시판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아니라 누리집의 특성이다.
③ 상태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대화방의 특성이다.
⑤ 문서 자료를 첨부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리집의 특성이다.
- 11 제시된 상황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2 (가)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이다. (가)의 작성자는 'ㅍㅍ'와 같이 모임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공적인 성격의 소통 공간에서는 이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나)에서 하준은 친구와 다룬 사적인 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 비속어를 사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는 친구와 다룬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게시한 것이다.
④ (나)에는 '하준'이라고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⑤ (나)의 댓글에서 '@' 기호로 친구의 계정을 언급한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기능을 활용한 것일 뿐, 문제점은 아니다.
- 14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에는 의사소통의 맥락과 목적, 참여자나 수용자,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호나 그림은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일 뿐, 이것이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니다.

01 ⑤ 02 ① 03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04 ③ 05 ③ 06 ③ 07 ① 08 ③ 09 ⑤ 10 ② 11 ③ 12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사적인 내용을 게시하였기 때문이다.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② 18 ③ 19 학교의 모든 학생이 알아야 할 공적인 정보를 특정 사람만 볼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개인 계정에 공지하였다.

01 (가)는 온라인 대화방,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다)는 누리집으로,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수용과 생산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02 (가)에서 정민은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여 수아와 일대일로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의 온라인 대화방과 달리, (나)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면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와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4 (다)에서 활용한 매체는 누리집으로, '공지 사항', '정보 마당' 등 게시판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어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이므로, 특정 사람들만 게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다)에는 조회 수와 추천 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다)는 누리집의 게시 글로, 누리집은 주로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공간이다.

⑤ 누리집의 주소를 직접 복사하지 않더라도 게시 글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글을 공유할 수 있다.

05 (가)는 학교 누리집의 학생 마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소통 상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이다. (가)의 작성자가 학예부로 제시되어 있으나, 소통 상대가 학교의 학예부 부원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다.

06 (가)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6월 20일 점심시간까지 1학년 교무실에 자신이 만든 필통을 제출하면 된다. (가)에서 댓글을 작성하여 행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7 (나)에서 활용한 매체는 온라인 대화방이다. 온라인 대화방은 대화방의 유형에 따라 일대일 또는 다수와 동시에 소통이 가능하고(ㄱ),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ㄴ), 문자와 함께 그림말을 전송하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ㄴ. 주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접근하는 매체는 누리집이다.

ㄷ. 온라인 대화방에서 나는 대화의 내용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공유한 횟수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가)는 학교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개인 계정에 올린 글이다.

09 (가), (나)와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할 때에는 의사소통의 맥락, 목적, 소통 공간의 특성, 소통 참여자나 수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할 때 반드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를 눌러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으나 (가)는 누리집으로, 주로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 글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으며, 조회 수 등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다.

11 (가)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중 건의할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른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친구와 개인적으로 다룬 일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는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 또는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을 이용해 친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13 ㉠은 해시태그로,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게시 글에 꼬리표를 다는 기능을 말한다. 해시태그를 활용하면 게시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특정 대상의 계정을 연결하는 것은 '@' 기호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② 해시태그로는 주로 게시물의 핵심 단어 또는 그와 연관된 단어나 문구를 작성하므로 작성자의 개인 정보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해시태그에 게시물이 작성된 시각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게시물 내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가능하다. 해시태그가 게시물 자체의 링크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4 제시된 자료에서는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 전학 간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학급 구성원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을 학급 대표가 물어보고 있는지는 자료에서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자료에서는 전학을 가서 떨어져 있는 친구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③ 자료의 소통 공간은 단체 온라인 대화방으로 다수가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

④ 자료에서 '○○', 'ㅎㅎ'와 같이 의도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서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⑤ 자료의 대화방은 '학급 공지방'으로 공적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자료에서는 이 공간에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15 제시된 자료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대화방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반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목적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전학 간 친구와 일대일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

16 갑작스러운 수업 시간표 변경과 같이 긴급한 내용을 반 친구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온라인 대화방은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다수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

17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적합한 매체이다. 따라서 다른 반 친구에게 방학 숙제를 물을 때에는 누리집이 아닌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누리집의 게시판은 그 성격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건의 사항 게시판은 사용자의 희망이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공간이므로, 상품 출시일과 같은 공지를 올리는 것은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공지 사항 게시판과 같이 목적에 맞는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학교 규칙과 같은 공적인 정보는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해당 매체의 계정이 없는 학생은 접근이 어렵고, 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공적인 정보 전달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규칙을 공지할 때에는 학교 공식 누리집과 같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소통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난도 읽기 심화문제

본책 126~127쪽

01 ② 02 ④ 03 [A]와 [B]는 모두 링크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링크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 04 ② 05 (가)는 공적인 성격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고 있는 반면, (나)는 정보 전달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소통하고 있다. 06 ⑤ 07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이나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을 이용해 친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01 (가)는 온라인 대화방,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다)는 누리집이다. (가)는 친밀한 관계의 친구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ㄱ). (나)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강아지를 목격한 장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다)는 댓글로 봉사 활동의 신청 마감일을 묻고 답하며 소통하고 있다(ㄴ). 또한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가입하지 않아 계정이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체이다(ㄷ).

▶ 오답 풀이 | 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기에 적합한 매체는 (다) 누리집이다.

ㄷ. 주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은 (가) 온라인 대화방이나 (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개인 계정이다.

02 (다)는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으로, 공적인 성격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때 활용하기 적합한 매체이다. 전학 간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사적인 내용이므로, 공적인 성격의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A]와 [B]는 모두 링크 기능을 활용한 사례이다. [A]는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로, 사용자가 해당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다. [B]는 누리집의 게시 글로 대화 중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A]와 [B] 기능의 명칭을 정확하게 썼다.	☐
[A]와 [B]의 기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바르게 썼다.	☐

04 (가)는 누리집으로, 상단에 '게시판' 학생 마당'이라고 글이 게시된 위치가 나타나 있는데,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글인만큼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생 마당'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을 알 수 있다.

05 (가)는 누리집,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개인 계정이다. (가)의 소통 맥락은 공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하며, 공적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고 있다. 반면 (나)는

정보 전달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함께 행사에 참여할 친구를 구하는 등 사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하며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소통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공적', '사적'을 포함하여 (가)와 (나)의 소통 맥락을 바르게 비교하여 썼다.	☐
제시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6** [A]는 그림말로, 그림말은 감정이나 느낌을 문자 대신 간단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대화 내용을 강조하거나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림말을 사용하면 대면 상황과 유사한 소통 환경을 조성해 주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 07** <보기>에서 하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친구와 다른 사적인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친구와 개인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내용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이나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여 친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썼다.	☐
<보기>의 상황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호 작용적 매체의 종류 두가지를 밝혀 썼다.	☐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128~133쪽

- 01 ③ 02 ① 03 ② 04 ② 05 학생회가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한 것 06 ⑤ 07 ②
08 ① 09 ⑤ 10 ⑤ 11 ③ 12 ㉠은 부사, ㉡은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 ③
14 ⑤ 15 ④ 16 ② 17 ④ 18 ④ 19 ③ 20 ①
21 ③ 22 게시판이 항목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23 ④ 24 ④ 25 ⑤
26 ㉠: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친구들), ㉡: 그림말 27 ②
28 소통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글을 게시하였다. 29 ⑤
30 ⑤ 31 ④

- 01** 우리말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뉜다. 또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다섯 가지로 나뉘며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아홉 개의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

립언 다섯 가지로 나뉘며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아홉 개의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

- 02** ㉠의 '밝다', '기쁘다', '따뜻하다'는 모두 용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의 단어는 체언('달', '저것'), 수식언('모든', '과연'), 독립언('이봐')이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03** '이슬비', '아침', '산책'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고,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홀로 쓰일 수 있으며, 주로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다. 주로 부사의 꾸밈을 받는 것은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이다.

- 04** ①, ③, ④, ⑤의 '그'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그러나 ②의 '그'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킨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 05** '그저'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학생회가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는 우리의 말을 가리킨다.

- 06**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체언은 수사이다. ㉠의 '일곱'과 ㉡의 '둘',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고, ㉢의 '첫째',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 오답 풀이 | ㉠. '한'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뒤에 나오는 의존 명사 '달'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 '일곱'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뒤에 나오는 의존 명사 '권'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 07**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동사이다. 그러나 '뚝갈구나'의 기본형은 '뚝갈다'로, 형용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오면(오다)', '피네(피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③ '사려(사다)', '가자(가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④ '생활해야겠다(생활하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⑤ '났더라(나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 08** '변함없는다'는 형용사 '변함없다'의 어간 '변함없-'에 현재형 어미 '-는다'가 붙은 것이다. 그러나 동사와 달리 형용사의 어간에는 현재형 어미 '-나다/-는다',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없으므로, '변함없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9**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므로 동사 '날다'의 어간 '날-'에 붙은 '-고'는 조사가 아니라 어미에 해당한다.

10 '도', '까지', '마져'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과 ㄹ, ㅁ은 모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에 더해 너를 좋아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ㄱ.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너임을 나타내는 뜻이 된다.

ㄴ.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나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 된다.

ㄷ. 다른 사람은 제한하고 오직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 된다.

11 제시된 문장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부사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 형용사이다.

② 부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는 명사(추상 명사)이다.

⑤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이다.

12 ㉠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은 뒤에 나오는 체언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에 해당하지만, 관형사는 문장에서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부사는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 '헌'은 뒤에 오는 명사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새로'는 뒤에 오는 동사 '산(사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뒤에 오는 동사 '굴러간다(굴러가다)'를 꾸며 주는 '데굴데굴'이라는 부사가 쓰였다.

② 뒤에 오는 명사 '말'을 꾸며 주는 '무슨'이라는 관형사가 쓰였다.

④ 뒤에 오는 동사 '좋아한다(좋아하다)'를 꾸며 주는 '몹시'라는 부사가 쓰였다.

⑤ 뒤에 오는 명사 '사람'과 '노래'를 꾸며 주는 '모든', '그'라는 관형사가 쓰였다.

14 밑줄 친 '앗', '저런', '그래'는 모두 감탄사로, 감탄사는 독립언에 속하여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감탄사는 생략해도 문장의 뜻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냥'은 관형사가 아니라 '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라는 뜻의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냥'은 앞에 오는 관형사 '천'의 수식을 받는다.

| 오답 풀이 | ① '일고'는 어간 '일-'에 어미 '-고'가 붙어 활용한 것으로 동사에 해당한다.

② '못된'은 '못되다'의 어간 '못되-'에 어미 '-ㄴ'이 붙어 활용한 것으로 형용사에 해당한다.

③ '여든'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⑤ '이면'은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이다'가 활용한 것이다.

16 제시된 문장에 쓰인 단어의 품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명사), '깨서'(조사), '땃발'(명사), '에서'(조사), '기르던'(동사), '상추'(명사), '를'(조사), '따다'(동사), '먹었는데'(동사), '참'(부사), '맛있었다'(형용사). 따라서 명사는 '아버지', '땃발', '상추'로 총 3개이다.

17 앞의 '저'는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뒤의 '저'는 뒤에 나오는 체언 '의자'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앞의 '같이'는 조사이고, 뒤의 '같이'는 '일하고(일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② 앞의 '보다'는 동사이고, 뒤의 '보다'는 조사이다.

③ 앞의 '마져'는 조사이고, 뒤의 '마져'는 '다하지(다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앞의 '아이'는 감탄사이고, 뒤의 '아이'는 명사이다.

18 '그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제시된 글에서 '그것'은 앞에 언급되었던 '돈이 많거나 여러 가지 크고 거창한 꿈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명사를 사용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 글이 간결해지지만, 그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19 (가)~(다)는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가 모두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20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수어는 링크 기능을 활용해 정민에게 자신이 목격한 강아지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제시된 자료들에서 그림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 온라인 대화방이다.

③ (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 기호를 활용하여 '강아지를 찾습니다' 계정을 연결하고 있다.

④ (다) 누리집에서 댓글을 통해 유기견 봉사 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⑤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상황이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가) 온라인 대화방이다.

21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자신이 쓴 게시 글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를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게시 글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다.

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친분이 없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다.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는 특정 대상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있다.

22 (다)는 누리집으로, 누리집은 게시판이 대개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23 제시된 자료는 누리집으로, 행사 안내문은 게시 글 내에 첨부된 문서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 우편과는 관련이 없다.

24 제시된 자료는 누리집의 게시 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게시물로 바꾼 것이다. 누리집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로, 두 매체 모두 작성자(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누리집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매체가 달라짐에 따라 작성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매체로 공적(사회적)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비교적 사적(개인적)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하다.

② 누리집의 게시 글에서와 다르게 ‘ㅎㅎ’, ‘ㄱㅈ’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③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개인 계정에 글을 올리며 소통 상대가 불특정 다수에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로 바뀌었다.

⑤ ‘학교_행사’ 등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 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5 제시된 자료는 단체 온라인 대화방으로, 민주는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게시 글의 링크를 전달하여 필통 만들기 행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6 제시된 자료에서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이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자 대신 그림말을 사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

27 (가)는 누리집,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다. (가)에서는 게시 글에 댓글을 달아 소통에 참여할 수 있으며(ㄱ), (나)에서는 글의 내용과 관련한 사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ㄴ).

| 오답 풀이 | 나.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 주로 사용한다. 다. (나)에서는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 혹은 공개 설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게시 글을 볼 수 있다. 르. (나)에서는 ‘@’ 기호를 활용하여 특정 계정을 언급하거나 연결할 수 있다.

28 (가)는 공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학교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고, (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 친구와 다툼 사적

인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는 모두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29 (가)는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매체인 누리집에서 공식적인 안내 사항을 게시하는 공지 사항 게시판이다. (가)의 작성자는 이러한 소통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적인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가)의 작성자는 학교생활 중 건의할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집의 다른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학년 ○반’이라고 표현하면서 사건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가)에는 ‘#’ 기호를 활용하여 해시태그를 단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ㅠㅠ’, ‘모라고’와 같이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한 게시판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④ 게시 글을 올린 작성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30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글과 함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31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친구와 개인적으로 다툼 사적인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내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4 갈등을 푸는 지혜

01 문학과 갈등

제재

본책 138~157쪽

1 ⑤ 2 ⑤ 3 ② 4 ① 5 ② 6 ① 7 ④
8 ⑤ 9 ② 10 ④ 11 공, 쌍안경 12 ⑤ 13 ②
14 ② 15 문기의 내적 16 ③ 17 ② 18 ③
19 ② 20 ① 21 ③ 22 ① 23 ④ 24 ③
25 ⑤ 26 ⑤ 27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28 ⑤
29 ④ 30 울음소리 31 ② 32 ④ 33 ④
34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35 ⑤ 36 ③ 37 ③ 38 ③ 39 ② 40 ①

- 이 소설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나)의 '며칠 전 일이다.'라는 문장을 기점으로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기가 현재 불안해하는 까닭이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글은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으로 지전 이혼 장과 은전 몇 닢을 받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 (가)에서 문기는 숨겨 둔 공과 쌍안경이 보이지 않자, 이 물건들이 숙모나 작은아버지의 손에 들어갔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문기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과 쌍안경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이 글은 19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 '고기 한 근'의 '근'은 고기나 한약재 등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 수만이 시키는 대로 숙모에게 거스름돈을 건네며 숙모의 눈치를 보고,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자는 수만의 말에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문기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골목에서 만난 수만에게 먼저 말을 건 사람은 문기이며, 이는 수만의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성격과는 관련이 없다.
- ㉠ '이상한 일'은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일을 가리킨다. ㉡ '헐 일'과 ㉢ '좋은 일'은 모두 문기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온갖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던 것들을 돈으로 바꾸어 보는 일을 의미한다.

- ⑧는 두 소년(문기, 수만)이 함께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쓰기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문기와 수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며 잘못을 합리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문기는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쓴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면서 갖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 버린 일이 삼촌에게 들통나서 혼이 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 문기는 삼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중문 안 안반 뒤와 책상 서랍 속 깊숙한 곳에 '공'과 '쌍안경'을 숨겨 두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삼촌이 '공'과 '쌍안경'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묻자 문기는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면서, 삼촌을 속였다는 것에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 ㉠ '오늘 저녁'은 문기와 수만이 고깃간에서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썼던 과거에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다. 이날 문기는 수만과 환등 기계를 사러 가기로 했지만, 공과 쌍안경을 삼촌에게 들켜서 혼계를 듣는다. 문기와 수만이 군것질을 하고, 활동사진 구경을 간 것은 문기가 고깃간에 심부름을 하러 갔던 날의 일이므로 ㉠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 삼촌은 문기의 부모를 대신하여 문기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엄하게 훈계한다. 따라서 삼촌이 문기를 불쌍하게 여겨 문기 대신 수만을 나무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문기의 아버지는 일상 천 냥 만 냥 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머니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문기의 삼촌이 부모를 대신하여 문기를 어렸을 때부터 길렀으나, 삼촌의 일을 돕는 다거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지는 않다.
-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쓰고, 공과 쌍안경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삼촌을 속인 일은 문기가 겪는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 버리고, 자신을 믿는 삼촌에게 공과 쌍안경을 수만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 (가)에서 문기는 쌍안경을 길바닥에 떨어뜨리고,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 버렸으며, 나머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

다. 이를 통해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18 문기는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나머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후, 무거운 짐을 풀어 놓은 듯 어깨가 거뜰하고,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해짐을 느낀다.

19 잘못을 깨닫기 전 문기는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거리낌 없이 공을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그 공을 볼까 두려워 공을 옆으로 껴다 뒤로 돌렸다 하며 숨기고 있다.

20 ㉠에서 '뜻하지 않은 것'은 '수만'을 가리키는 말로, 문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조한 환등 틀을 사러 가자고 찾아온 수만을 만난다. 이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기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문기가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 남아 있음을 나타내며, 문기와 수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21 수만이 문기의 먹살을 잡은 순간,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 스스로 물려난 것일 뿐 이웃집 사람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린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공과 쌍안경을 버렸다는 문기의 말에서 문기가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들을 버렸음을 알 수 있다.

② "뭐 말야? 환등 틀 사기 싫단 말야?", "그래도 나하고 약조한 건 실행해야지."라는 수만의 말에서 수만과 문기가 함께 환등 틀을 사러 가기로 약속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문기는 환등 틀을 사러 가자는 수만에게 남은 돈을 모두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져 주어서 남은 돈이 없다고 하였다.

⑤ 수만은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혼자 돈을 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2 문기가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것은 더 이상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다. 따라서 문기가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3 문기는 거스름돈을 모두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져서 남은 돈이 없다고 했으나, 수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만이 남은 돈을 받아 내려고 문기를 협박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24 ㉡ "난 싫다."라는 문기의 말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문기의 단호한 태도가 드러난다.

25 수만은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돈을 혼자 쓰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기에게 나머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이다.

26 수만은 등교길에 문기가 보도록 판장과 삼거리 잡화상 빈지판에 백묵으로 "김문기는 ○○○했다"라고 써 두었으며,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문기 뒤에서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 공했다지.",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라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왔다.

27 문기는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앞이 캄캄했다'라는 표현에서 문기가 느끼는 절망감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8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기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모습에서 수만의 집요하고 비열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29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으로써 문기와 수만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만, 문기의 내적 갈등은 심화된다. 숙모의 돈을 훔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값으면 고만 아니냐.'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30 문기는 아랫방 들창 밑에서 들리는 점순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점순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괴로워하고 있다.

31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 버리고 삼촌에게 거짓말로 둘러댄 '첫 번째 허물'에 이어, 수만의 괴롭힘에 못이겨 숙모의 돈을 훔치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만다.

32 문기는 자신 대신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점순에 대해 죄책감, 미안함, 괴로움 등을 느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3 문기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늘조차 쳐다보기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하늘'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검검하고 무거운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는 대상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 양심,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어두워진 하늘이 다시 밝아지기 어렵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4 죄책감에 시달리던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땀뻗은 마음을 되찾기 위해 담임 선생님의 집을 찾아갔다.

35 이 작품은 문기가 고깃간에서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수만과 함께 쓰면서 겪게 된 여러 갈등을 통해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수신 시간의 제목인 '정직'은 이러한 작품의 주제와 연결된다. 또한 문기는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선생님이 마치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는 '지는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라는 의미인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속담과 관련 있다.

| 오답 풀이 | ㄱ. 문기가 수신 시간을 통해 '책임'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ㄴ. 선생님이 문기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직에 관하여 수업을 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6 이 글에서 문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 ㉡, ㉢, ㉣은 이러한 문기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반면, ㉤은 맑고 푸른 하늘을 가리키며 문기의 어두운 마음과 대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37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깨어난 문기는 삼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하고 마음이 맑아짐을 느낀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문기가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로써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은 마무리된다.

38 문기는 담임 선생님 택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이후 문기는 삼촌에게 잘못을 모두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

39 이 글은 문기가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뒤 겪는 다양한 갈등을 통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40 삼촌은 교통사고를 당한 문기가 눈을 뜨자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하며 근심스러운 얼굴로 문기를 내려다보았다. 따라서 ㉠은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문기를 걱정하는 삼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오답 풀이 | ㉡ ㉢: 문기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 ㉣: 문기가 처음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고, 그 돈을 써 버린 것, 불량 안의 돈을 훔친 것까지 모두 자백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는 문기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의미한다.

㉣ ㉤: 문기는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낸다. 이 과정에서 문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몸도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 '문기는 그 하늘을 뚫듯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문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전에는 뚫듯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집계 **썩** 예상 문제

본책 158~163쪽

- 01 ⑤ 02 ③ 03 (나)-(다)-(라)-(가) 04 ④ 05 ②
06 ⑤ 07 써서는 안 될 돈을 쓴 것과 삼촌을 속인 것 08 ②
09 ② 10 ② 11 ③ 12 ② 13 ① 14 ③ 15 ①
16 ⑤ 17 ② 18 ⑤ 19 ② 20 ② 21 ② 22 ④
23 ② 24 자신이 그동안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문기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으면서 겪게 되는 사건들로 인한 문기의 내면과 사건의 진행에 따른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19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② 이 글은 소설로, 작가의 경험을 솔직하게 쓴 수필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 즉 소설이다.

③ 이 글은 3인칭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대상에 대한 인물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문기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게 된 공이 보이지 않자 숙모에게 들켰을까 봐 불안해한다(㉠).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함께 쓰자고 수만이 제안했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거스름돈으로 여러 물건을 살 때에는 갖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낀다(㉢).

03 이 글은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전환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가)~(라)를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배열하면, 문기가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으로 지전 아홉 장과 은전 몇 닢을 받은 (나), 수만의 생각대로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다),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수만과 문기가 함께 공과 만년필, 쌍안경 등을 산 (라), 숨겨 둔 공과 쌍안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문기가 불안해하는 (가)의 순서가 적절하다.

04 ㉠에서 수만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만족하고 있다. '이상한 웃음'은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온갖 해 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수만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의미한다.

05 (가)에서 삼촌은 문기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문기에게 엄하게 훈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촌은 조카인 문기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삼촌은 문기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후론 절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다짐을 받는다. 따라서 문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감싸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삼촌은 문기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엄하게 훈계하는 것일 뿐, 문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문기가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뜻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 뿐, 자신의 뜻을 몰라주는 문기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삼촌이 문기의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06 자신을 길러 주는 삼촌의 훈계를 들은 후 문기는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후 거스름돈으로 산 공을 물 위로 던져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지고 나서야 문기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밀려는 알미운 구실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수만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7 (나)에 따르면 문기의 잘못은 첫째로 써서는 아니 될 돈, 즉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써 버린 것이며, 둘째로 삼촌을 속인 일이다.

08 ㉠은 문기가 남은 돈을 물 위에 던져 버리려다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기와 삼촌이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다.

09 이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등은 돈이 없다는 문기와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려고 문기를 협박하는 수만 사이에 발생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종류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은 가수가 되고 싶은 지수와 이를 반대하는 아버지이다.

| 오답 풀이 | ① 자연환경과 인물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③, ④ 인물과 그 인물이 속한 사회와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⑤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외적 갈등의 종류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 간에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하면서 겪는 갈등 ㉠ 김유정, 「동백꽃」: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한 점순과, 점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가 서로 갈등함.
인물과 그 인물이 속한 사회와의 갈등	인물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 등과 대립하여 겪는 갈등 ㉡ 허균, 「홍길동전」: 조선 시대에 서열(첩의 자식)로 태어난 홍길동은 벼슬을 얻고자 하나 당시의 신분 제도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없어 갈등을 겪음.
인물과 자연환경과의 갈등	인물이 자연환경과 대립하여 겪는 갈등 ㉢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청새치, 상어와 사투를 벌임.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운명과의 갈등	인물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과 대립하여 겪는 갈등 ㉣ 김동리, 「역마」: 성기는 역마살(떠돌아다니는 운명)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순응하기로 함.

10 이 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은 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준 문기와 문기에게 남은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그러나 문기가 수만의 잘못을 삼촌에게 일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수만은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남은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고 있다.

③ 문기와 수만은 함께 환등 틀을 사기로 약속했지만, 문기는 작은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수만은 문기를 괴롭히는 것이다.

④, ⑤ 문기는 삼촌에게 꾸중을 들은 후, 앞으로는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이 결심으로 남은 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고, 공도 쌍안경도 버렸다.

11 ㉠에서는 문기와 수만의 다툼이 있는 다음 날로 시간적 배경이 전환되며, 이때부터 문기에 대한 수만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오답 풀이 | 나. 문기와 수만 사이의 갈등은 전날 저녁 환등 틀을 사러 가자는 수만의 말을 문기가 거절하면서 발생하였다.

다. 문기와 수만이 환등 틀을 사러 가기로 한 날은 그 전날이다.

12 수만이 판장과 빈지판에 백묵으로 “김문기는 ○○○했다”라고 쓴 것을 보고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 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껴 자신의 이름자를 지워 버렸다.

13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소심하고 겁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수만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기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모습에서 비열하고 집요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4 (가)에서는 돈이 없다는 문기와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돈을 받아 내려는 수만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인물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외적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문기는 칠판에 “김문기는 ○○○했다.”라고 쓰인 것을 보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날까 봐 초조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③ 수만이 선생님의 반응을 살핀 후 더 심한 장난을 계획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⑤ 선생님은 칠판에 쓰인 내용을 보고 별다른 반응 없이 지워 버렸다. 따라서 선생님이 장난친 사람에게 주의를 주었거나 낙서에 관심을 보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6 ㉠ ‘이런 생각’은 문기가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어 숙모의 돈을 훔친 만큼 값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기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17 문기는 자신이 돈을 훔친 일로 점순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점순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워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인물에게 피해를 주면서 죄책감이 더욱 커진 것이다 (ㄴ). 문기는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면서 선생님이 자기 한 사람에게만 정직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 양심의 가책을 더욱 크게 느낀다(ㄷ).

18 문기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땀땀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다는 문기의 말은 양심을 회복하고 잘못을 저지르기 전의 땀땀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늘'은 맑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을 뜻한다. 하지만 하늘이 잘못을 감싸 주는 너그러운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문기는 수신 시간에 정직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는 '지는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라는 의미의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속담과 관련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날이 장날'은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④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욕을 당한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불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또는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20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친 후 점순이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한다. ㉠, ㉡, ㉢, ㉣은 이처럼 죄책감으로 인해 어둡고 무거운 문기의 심리를 드러낸다. 반면 ㉤은 점순의 울음소리로 문기의 죄책감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문기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1 이 소설은 문기가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후, 여러 갈등을 겪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22 (다)는 소설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①은 절정, ②는 위기, ③은 발단, ⑤는 전개에 관한 설명이다.

23 문기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 댁을 찾아간다. 그러나 선생님은 부드러운 웃음으로 문기를 대했을 뿐, 문기가 찾아온 이유는 알고 있지 않았으며,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고,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손님 오느라 문기가 자백을 할 만큼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지도 않았다.

24 문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그동안의 잘못(고깃간 주인에게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써 버리고, 불장 안의 돈을 훔친 것)으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고난도 읽 심화문제

본책 164~165쪽

01 ② 02 ㉠: 역순행적, ㉡: 며칠 전 일이다. 03 ③ 04 ③
05 맑고 깨끗한 하늘과 같은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자. 06 ④

01 '어부지리(漁夫之利)'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이다. 문기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것은 고깃간 주인의 실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어부지리로 얻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문기는 서랍 속 깊숙이 간직해 둔 쌍안경이 보이지 않자,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하여 도시 글이 읽히질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인 '좌불안석(坐不安席)'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문기와 수만은 문기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함께 쓰려고 하면서도 잘못을 서로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자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인 '동상이몽(同床異夢)'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④ 삼촌은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얹혀 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근묵자흑(近墨者黑)'할까 봐 걱정한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⑤ 문기는 삼촌의 훈계를 들은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 후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산 공을 물 위로 던지고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며 집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어떤 동기가 있어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짐을 이르는 말인 '심기일전(心機一轉)'하였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02 역순행적 구성은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가는 구성으로, 이 글에서는 (가)에서 (나)로 내용이 전개될 때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전환되고 있다. '머칠 전 일이다.'는 이러한 시간의 전환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현재 문기가 불안해하는 까닭이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들어갈 말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성을 썼다.	☐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전환되는 문장을 바르게 찾아 ㉡에 썼다.	☐

- 03 (가)에서 문기는 ㉠ '쌍안경'을 작은아버지에게 들일까 봐 초초해하고 있다(ㄱ). (마)에서 문기는 멀리 떠나간 ㉡ '공'과 같이 자신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것처럼 후련함을 느낀다. 이를 통해 문기의 내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ㄴ).

오답 풀이 | 나. ㉡는 문기와 수만 간의 갈등과 관련이 없다.

ㄷ. ㉢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물건으로 문기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지만, 수만이 공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는다.

- 04 (나)에서 문기와 숙모 사이의 외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문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훔친 돈은 값으면 그만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 보지만, 문기의 내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 대신 누명을 쓰고 쫓겨 난 점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더욱 심화된다.

- 05 이 작품은 문기가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뒤 겪는 다양한 갈등을 통해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하늘'은 맑고 깨끗한 마음, 양심, 죄책감이 없는 마음 상태 등을 의미하며, 문기는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야 하늘을 뚝뚝하게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하늘'이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르게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6 문기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나무라는 것처럼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선생님이 문기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토의하기

본책 168~175쪽

활동 학습

1 ③ 2 ③ 3 ④ 4 ② 5 ② 6 ③ 7 ③
8 ⑤ 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③ 14 ③
15 ⑤ 16 추첨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하였다.

- 1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민준과 친구들은 번호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 불편함을 겪었다는 (학급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토의를 하기로 하였다.

- 2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토의 유형과 각자 토의에서 맡을 역할을 정하고,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양측이 상대측을 설득하는 말하기는 토론이다.

참고 자료

토의와 토론의 비교

	토의	토론
개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의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양측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측을 설득하는 것
목적	정보 · 의견 교환	주장과 설득
주장	다양한 주장	두 가지 주장(찬성과 반대)
상호 관계	상호 협력적	상호 경쟁적
담화 방법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함.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주장을 제시함.

- 3 원탁 토의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유형을 말한다.

오답 풀이 | ①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뿐만 아니라 청중도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원탁 토의가 패널 토의에 비해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는 알 수 없다.

③ 패널 토의에서 청중은 토의자 간 의견 교환이 끝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질문할 수 있다.

⑤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의견을 펼치는 경쟁적인 말하기는 토론이다.

- 4 민준과 친구들은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고, 패널이 아닌 친구들은 청중으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널 토의를 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토의의 유형

원탁 토의	- 토의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음.
패널 토의	-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3~6명의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토의 - 토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음.
심포지엄	주로 학술적인 내용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식으로 의견을 발표한 뒤 청중의 질문을 받고 질문하는 토의
포럼	의견이 서로 다른 토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후 청중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며 함께 결론을 이끌어 내는 토의

- 5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그러나 ②와 같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는 것은 토론 주제로 적절하다.
- 6 (나)~(라)에서는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서연, 은우, 지아가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토의의 절차 중 ‘토의자의 의견 제안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 7 (다)에서 은우는 아침 일찍 오는 노력에 따라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지아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②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선착순으로 정하면 모두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의견을 내었고, 그 근거로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수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고 제안한 토의자는 지아이다.
- 8 (가)에서 사회자인 민준은 토의를 하게 된 배경과 토의 주제,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며, 토의자에게 차례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9 은우는 지아가 먼저 온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서로 빈자리를 맡아 주지 않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10 은우의 제안에 서연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은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만 앉아야 한다는 문제(口)를, 지아는 먼저 온 친구가 친한 친구와 앉고 싶어서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문제(ㄱ)를 제기하고 있다.
- 11 (바)에서 서연은 연성을 높이면서 은우의 제안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원활한 토의 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토의에 참여할 때에는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 12 ㉔은 토의자 간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여 원만한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자의 역할과는 관련이 적다.
- 13 이 토의에서 청중인 은서, 하운, 유찬은 토의자들의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토의자는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토의자는 자신의 의견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14 서연은 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을 경우 성향이 비슷하거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없어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고 있다. 또한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지아의 의견에 일정 기간마다 자리를 바꾸면 학생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15 ㉔은 지아의 의견에 대한 유찬의 질문으로, 유찬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할 때 신체적인 특성으로 특정한 자리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아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를 미리 조사하여 자리 배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 16 (카)에서 “오늘 토의를 통해 추첨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라는 민준(사회자)의 말을 통해, 토의 결과 추첨으로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집해 썩 예상 문제

본책 176~179쪽

-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6 ②
 07 ㉔: 토의자 08: 의견 09: 청중 10: 질문 11 ② 12 ④
 13 은우 14 ⑤ 15 ① 16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17 ④

- 01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따라서 토의는 타당한 근거와 함께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
- 02 (가)에서 민준과 친구들은 그동안 번호 순서대로 자리를 고정하여 앉으면서 불편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 통해 자리를 바꾸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 03 (나)에서 민준과 친구들이 선택한 토의 유형은 ‘패널 토의’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토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 | 오답 풀이 |** ①, ④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으로, 심포지엄은 주로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몇 사람의 전문가가 강연식으로 발표한 뒤,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토의 유형이다.
② 원탁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포럼에 대한 설명으로, 포럼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른 토의자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한 후, 청중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 유형이다.
- 04 (가)에서 민준(사회자)은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며 토의자에게 차례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나. 토의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로, 모든 토의 참여자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이다.
㉠. 토의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 청중의 역할에 해당한다.
- 05 (다)에서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그 근거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아침 일찍 오는 노력에 따라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06 (라)에서 지아는 서연과 은우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토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7 패널 토의는 먼저 토의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순서로 진행된다.
- 08 토의자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차례로 발언해야 하며, 사회자는 모든 토의자가 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토의자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면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기 어렵다.
- 09 (나)에서 은우는 반 친구들의 등교 순서가 집까지의 거리와 꼭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

리가 등교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은우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0 (나)에서 은우는 선착순으로 앉을 경우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지아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서로 빈 자리를 맡아 주지 않기로 우리 반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11 (나)에서 서연은 은우의 의견을 비난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때 사회자는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며, 토의자 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원만한 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12 (가)~(다)는 토의의 절차 중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청중은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토의자들은 이를 귀 기울여 듣고 답변해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토의자의 제안 단계에 해당한다.
② 토의자 간 의견 교환 단계에 해당한다.
③ 토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
④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 13 (다)에서 서연은 지아의 의견에 대하여 추첨으로 자리를 정했을 때에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리를 일정 기간마다 바꾸어 학생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하자고 하였다.
- 14 [A]에서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지아의 의견에 서연이 제시한 절충안을 반영하면 공평하면서도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다른 토의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토의를 하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15 유찬은 교정시력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맨 뒤에 앉게 되는 등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후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학급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은 사회자인 민준이 청중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발언으로, 청중이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은 서연이 자신의 제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마음이 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의견의 한계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은 하윤이 은우에게 특정 학생들만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은우의 의견이 가진 한계를 짚고 있는 부분이다.
⑤ ㉤은 서연이 지아의 의견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장면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고난도 **업** 심화 문제

본책 180~181쪽

01 ③ 02 ④ 03 서연은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04 ③ 05 이 토의는 패널 토의로,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토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06 ⑤

01 (가)에서 민준(사회자)은 토의 주제와 토의자인 서연, 은우, 지아를 소개하고(ㄱ), 이들에게 차례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ㄴ). 또한 (다)에서 민준(사회자)은 상대방의 의견을 비난하는 서연을 제지하며 원만한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ㄷ).

| 오답 풀이 | 나. 토의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한 사회자의 역할이나,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ㄹ. 청중의 역할로, 청중은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토의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02 (다)에서 지아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은우의 의견에 대해 먼저 온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03 (다)에서 서연은 언성을 높이며 은우의 의견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원활한 토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토의에 참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서 서연이 토의에 참여한 태도의 문제점을 썼다.	☐
서연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토의 태도를 썼다.	☐

04 (라)에서 지아는 신체적인 특성으로 특정한 자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유찬의 질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를 미리 조사하여 자리 배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아가 청중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은우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지아의 의견과 이에 대해 서연이 제시한 절충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② 이 토의에서 민준(사회자)은 토의 주제에 대한 토의자들의 의견을 요약하고, 토의 순서에 맞게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④ 서연은 지아의 의견에 대해 추첨으로 자리를 정했을 때에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자리를 바꾸어 학생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유찬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지아의 의견에 대하여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특정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경우에 관해 질문하면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05 (가)에서 토의자끼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보아, 이 토의의 유형은 패널 토의임을 알 수 있다. 패널 토의는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토의의 유형을 바르게 썼다.	☐
패널 토의의 특징을 토의 절차와 관련하여 썼다.	☐

06 (나)에서 은우는 반의 모든 친구들이 추첨에 참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지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아는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리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자리를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82~189쪽

01 ③ 02 ⑤ 03 ④ 04 자기 책임은 없다 05 ④
06 쌍안경과 공을 몰래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짐. 07 ③ 08 ① 09 ② 10 ② 11 문기에게 남은 돈을 받아 내겠다. 12 ③ 13 ② 14 ① 15 ④
16 내적 갈등 17 ① 18 ④ 19 ③ 20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21 ② 22 ②
23 짝이나 모둠이 함께하는 활동을 할 때 활동하는 과정이 수월하고 활동의 결과물이 좋으며, 수업 시간에 어려운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다. 24 ② 25 ① 26 ⑤ 27 저처럼 매일 멀리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면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만 앉게 될 수 있습니다. 28 ④ 29 ③
30 추첨이 공평하면서도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1 ①

- 01 다. 이 글은 문기가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받고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 이 글에서는 '지전', '동구미', '은전' 등과 같이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임을 알 수 있는 소재가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ㄱ. (나)의 '며칠 전 일이다.'에서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고 있다.

ㄴ. 이 글은 소설로,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다.

ㄷ. 이 글은 3인칭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한다.

- 02 (라)에서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얼려 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구, 내 모양은 뭐냐?"라는 삼촌의 말에서 문기가 성실하지 못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다 나쁜 길로 빠질까 봐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삼촌은 문기의 부모님에 대해 언급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② 삼촌이 문기에게 돈을 모으라고 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삼촌의 말에는 문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훈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문기가 나쁜 데 빠질까 봐 염려하고 있을 뿐이다.

④ 삼촌의 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 03 ㉔에서 문기의 가슴이 두근거린 것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고 난 이후에 문기는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즐거워한다.

| 오답 풀이 | ① 문기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자신이 간직해 둔 쌍안경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다. 이는 문기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② 문기는 책을 펴 들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글이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이는 문기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심리를 보여준다.

③ 문기는 숙모에게 받은 돈을 일 원짜리라고 알았지만,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⑤ 삼촌의 훈계를 듣고 문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수그리고 앉았다. 이는 부끄러움과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문기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 04 ㉑는 문기와 수만이 함께 돈을 쓰기로 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문기와 수만이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05 이 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종류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친구에게 아끼는 물건을 빌려줄지 말지 고민하는 소미이다.

| 오답 풀이 | ①, 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에 해당한다.

② 인물과 자연환경과의 갈등에 해당한다.

③ 인물과 그 인물이 속한 사회와의 갈등에 해당한다.

+ 참고 자료

갈등이 잘 드러난 현덕의 또 다른 작품

- 「나비를 잡는 아버지」: 가난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바우는 마름집 아들 경환이 학교 숙제로 나비를 잡는 답시고 설치는 것이 못마땅하다. 바우가 나비를 가만두라고 하자 이에 발끈한 경환이 바우네 참외밭을 짓밟아 놓고, 눈이 뒤집힌 바우는 경환에게 달려들어 싸움을 벌인다. 이를 알게 된 바우의 아버지는 나비를 잡아가지고 가서 빌라며 호되게 야단을치고, 바우는 야속한 마음에 가출할 마음까지 품게 된다. 그러나 다음 날 나비를 잡으러 뛰어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바우는 진정한 부정(父情)을 깨닫는다.
- 「고구마」: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가꾸던 고구마밭이 파헤쳐진 것을 보고 아이들은 가난한 수만을 의심한다. 친구 기수는 수만의 편을 들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고구마 비슷한 것을 보자 배신감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달려들어 빼앗는다. 그러나 고구마가 아니라 수만의 어머니가 얻어 온 놀은밥인 것을 알고 수만 앞에 고개를 숙인다.

- 06 삼촌의 훈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 이로써 문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 07 공과 쌍안경은 모두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산 물건이다. 삼촌이 이 물건들을 발견하고, 문기에게 훈계를 함으로써 문기는 써서는 안 될 돈을 쓰고, 삼촌을 속이는 두 가지 잘못을 했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공과 쌍안경은 문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물건으로, 문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낌에 따라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 08 ㉑, ㉒, ㉓는 모두 문기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일을 가리킨다.

| 오답 풀이 | ㉑는 문기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일을 의미한다.

㉓는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문기의 앞에 수만이 등장한 것으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암시한다.

- 09 (가)에서 문기는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지고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던 속내를 수만에게 들켜서 당황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문기는 돈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만에게 먹살을 잡히고, 판장과 빈지판에 자신과 관련한 낙서를 발견한

다. 또한, 수만은 문기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괴롭히는데 이러한 문기의 상황은 독자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③ 문기는 작은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후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고깃간에 남은 돈을 돌려주고,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수만은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수만의 태도는 독자에게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④ 문기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올바른 선택이며, 도덕적으로도 긍정적인 행동이다.

⑤ 수만이 판장과 빈지판에 백묵으로 “김문기는 ○○○했다”라고 쓴 것을 보고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껴 자신의 이름자를 지워 버렸다. 또한 수만이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문기 뒤에서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했다지.”,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라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자 두려운 기색을 보인다. 이러한 문기의 심리 상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10 수만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기의 모습에서 문기가 소심하고 순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보아 집요하고 영악한 수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1 (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문기와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남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괴롭히는 수만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12 ‘의아하다’는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라는 뜻이다. ㉔에서 문기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에게 의아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을 믿어 달라며 호소하듯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문기가 수만과 함께 환등 틀을 사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다. 문기는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비치고 있으므로,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문기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지만, 수만은 문기의 말을 믿지 않으며 몰아세운다. 이에 문기는 변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울상을 짓는다. 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한 표정을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문기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낙서를 보고 깜짝 놀라 지우려 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초조함을 느낀다는 의미이므로, 초조한 표정을 짓는 것이 적절하다.

⑤ 수만은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계속 괴롭힐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만은 문기를 협박하면서도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으며, 상대를 위협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협박하는 투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다)에서 문기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하늘’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㉑에서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심하고 겁이 많은 문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㉑에서 문기가 돈을 수만에게 던지는 행동은 수만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

③ ㉔은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㉔에서 ‘일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라는 묘사를 통해 문기가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⑤ 문기는 ‘값으면 고만이지’라는 생각을 되뇌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결국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15 ㉔은 문기가 수만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에게 준 일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문기와 수만 사이의 외적 갈등은 해소되지만, 점순이 문기 대신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㉔은 문기가 삼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16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쳤지만, 문기 대신 점순이 누명을 쓰고 일하던 아랫집에서 쫓겨난다. 그날 밤 아랫방 들창 밑에서 점순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문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한다. 즉, 점순의 울음소리가 문기의 내적 갈등을 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17 이 글은 주인공인 문기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8 (나)에서 문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마음껏 즐기고 있지 못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선생님은 자신을 찾아온 문기를 부드러운 태도로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문기는 모든 잘못을 고백하려고 선생님 댁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와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③ (라)에서 문기는 선생님 댁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⑤ 고깃간 주인이 문기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9 문기는 숙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자백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떳떳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선생님 댁을 찾아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과 ㉡은 문기가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선생님이 마치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처럼 느낀다는 점에서 문기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④ ㉢은 문기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점점 더 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⑤ ㉣은 문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벌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0 문기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양심을 회복한다. 이로 인해 문기의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문기가 하늘을 떳떳이 쳐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 속 갈등을 이해하는 방법

-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파악한다.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
- 인간의 보편적 갈등과 정서를 바탕으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이해한다.
-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행동과 가치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한다.

21 (나)에서 민준(사회자)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교실에서 번호 순서대로 자리를 앉으면서 불편했던 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리를 바꾸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 토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22 (가)에서 은우는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살피볼 수 있고(㉠), 패널이 아닌 친구들은 청중이 되어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며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널 토의를 제안하였다.

| 오답 풀이 | ㉢. 패널 토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므로 권위자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원탁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23 (다)에서 서연은 짝이나 모둠이 함께하는 활동을 할 때 활동하는 과정이 수월하고 활동의 결과물도 훨씬 좋으며, 수업 시간에 어려운 내용도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4 ㉠에서 지아는 서연과 은우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토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5 (다)에서 은우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지아에게 추첨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아니라 추첨의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다)에서 지아는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리를 추첨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자리를 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고 있다.

③ (가)에서 지아는 친한 친구와 짝이 되었을 때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개인적인 경험을 사례로 들어 서연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④ (나)에서 민준은 연성을 높이며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비난하는 서연을 제지하고 있다.

⑤ (가)에서 서연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지아가 제시한 의견(친한 친구와 같이 앉을 경우 수업 시간에도 떠돌 수 있다는 문제점)을 좋은 지적이라고 하며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26 (나)에서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면 먼저 온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지아가 제기한 문제점을 수용하고, 이에 대해 서로 빈자리를 맡아 주지 않기로 우리 반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7 ㉠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된다. 토의는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28 사회자는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키며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청중은 토의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해야 한다.

② 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므로, 토의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③ 토의자는 자신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사회자는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토의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9 (가)에서 민준(사회자)은 청중에게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도록 안내하며, 청중이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30 은우는 처음에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은우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지아의 제안에 서연이 제시한 절충안을 반영하면 공평하면서도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고 있다.

31 ㉠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발언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협력적인 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오답 풀이 | ㉡.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의 흐름 속에서 논의된 의견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 서연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난 나를 믿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시해를 대비하는 문제집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01. 운율, 비유, 상징의 즐거움)

본책 4~7쪽

- ① 의성어 ② 자장가 ③ 의인 ④ 별 ⑤ 길
⑥ 청소년

01 ④ 02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 2연: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 표현 효과: 리듬감을 느끼게 하여 시를 읽는 즐거움을 준다.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03 ④ 04 ④ 05 ③
06 ③ 07 ② 08 ⑤ 09 화안히 10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11 ③ 12 ③ 13 [A]에서는 땅에 돌아난 '파란 싹들(원관념)'을 '아이들(보조 관념)'에 직접 빗댄 직유와 사람이 아닌 '파란 싹들'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을 사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14 ⑤ 15 ④ 16 ④

- 01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서는 상징이 사용되지 않았다.
- 02 2연과 6연에서는 비슷한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시를 읽는 즐거움을 준다.
- 03 비유는 두 대상을 연결해 공통된 속성을 강조하거나 유사성을 드러냄으로써 표현하려는 대상을 더 생생하고 참신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비유는 두 대상 간의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이지, 차이점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
- 04 ㉠ '하얀 이불', ㉡ '자장가', ㉢ '아이들'은 각각 '산과 들에 쌓인 눈',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 '파란 싹들'이라는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한 보조 관념이다.
- 05 1~4연에서는 봄눈이 내린 날 골짜기의 물소리만 나직하게 들리는 풍경에서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나타나며, 5~8연에서는 봄눈이 녹은 자리에 파란 새싹이 돌아난 풍경에서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 06 이 시의 1~2연에서는 '될 수 있을까'라는 시구를, 3~4연에서는 '갖고 싶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말하는 이의 소망을 고백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 '별', '꽃' 등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교훈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 ② 이 시에서는 '~싶다'와 같이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여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으나, 수미상관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⑤ 이 시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07 이 시에서 '별'은 내게 힘이 되는 존재이며(㉠), '마음 어두운 밤'은 말하는 이가 처한 힘든 현실을 암시한다(㉡).
| 오답 풀이 | 나, '꽃'은 내게 공감해 주는 존재이자 나를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의미한다.
리, '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 등을 의미한다.
- 08 이 시는 비슷한 문장 구조나 같은 시구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는 반복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다.
- 09 <보기>는 시적 허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 쓰인 시적 허용은 '화안히'로, '환히'를 문법에 어긋나게 쓴 표현이다.
- 10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삶을 소망한다.
- 11 ㉠은 하얀 들꽃이 눈물짓듯 웃어 준다고 표현함으로써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을 사용하고 있다.
- 12 (가)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에서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13 [A]에서는 봄눈이 녹은 자리에 돌아난 '파란 싹들'을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에 직접 빗대고 있으며(직유), 파란 싹들이 마치 사람처럼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고(의인) 표현하고 있다.
- 14 <보기>의 '꽃'은 일상적인 의미로,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이다. ㉠은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포용해 주는 존재 등을 상징하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 15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16 ㉠은 관용 표현을 인용한 부분으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난 존재이며, 완전한 인간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추론하며 듣기)

본책 8~11쪽

- ① 정보 ② 의미 ③ 안전모 ④ 자신감 ⑤ 근육
⑥ 안전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지금 몇 시니?
07 ④ 08 ⑤ 09 학급 게시판을 함께 꾸미자고 부탁
10 ③ 11 ④ 12 ① 13 자전거 안전모의 무화
14 ④ 15 ⑤ 16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01 답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 오답 풀이 | ① 답화에서 발화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② 답화 참여자의 표정과 몸짓은 말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답화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③ 답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④ 상황 맥락은 답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이므로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과 모두 관련이 있다.

02 어머니가 비가 온다고 말한 의도는 서현에게 우산을 챙기라고 하기 위함이다.

03 일상 답화에서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와 답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들어야 한다. 상황 맥락은 시간과 장소 외에도 화자와 청자, 의도와 목적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과 장소만 고려하는 것은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04 (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미 영화관 앞에서 만난 상황으로, 여학생의 “화났어?”라는 말을 통해 남학생은 여학생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5 일상적인 답화는 대부분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대화이므로 쌍방 간의 소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06 두 상황에서 ③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몇 시니?”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가)에서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는 의미로, (나)에서는 현재 시각을 묻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7 종하는 민서가 팔을 다친 것에 대해 물었을 뿐, 민서가 게시판을 함께 꾸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았다.

08 ㉠은 과자를 먹겠다는 종하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거절의 의미를 지니고, ㉡은 많이 다쳤다는 종하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팔을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참을 만하다는 의미이다. 즉 ㉠과 ㉡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 ㉠은 종하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이다.

㉡. ㉡은 거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미안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09 종하가 민서에게 내일 시간이 있는지 묻는 까닭은 내일까지 학급 게시판을 꾸며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므로 학급 게시판을 함께 꾸미자고 부탁하기 위해서이다.

10 이 뉴스 보도는 기자가 직접 겪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터뷰와 통계 자료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

11 자전거 이용자와 대역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자전거를 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보도에서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실태 및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제시한 것이다.

12 ㉠은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13 기자는 이 뉴스 보도를 통해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의 실효성을 짚어 보고,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관련 법을 현재보다 실효성 있게 바꾸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14 이 답화는 설득 답화의 하나인 연설로,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15 이 연설의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스스로 사랑할 때 더 강하고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기며, 마음의 근육을 만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화자는 현재 종합 격투기 세계 챔피언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화자는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져 데뷔 경기 이후에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보아도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화자는 열다섯 살에 최연소로 데뷔 경기를 치루고 우승까지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는 자신을 종합 격투기 프로 선수라고 소개했을 뿐, 격투기 프로 선수를 가르친다고 하지는 않았다.

16 (다)에서 화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는 시합 직후의 사진을 ‘인생 사진’으로 제시하여 이처럼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01. 요약하며 읽기)

본책 12~15쪽

- ① 정보 ② 주장 ③ 사건 ④ 과의존 ⑤ 뇌 발달
⑥ 패스트 패션

01 ② 02 나, 다 03 ③ 04 ① 05 ⑤ 06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 07 ② 08 ① 09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가 발생하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10 ⑤ 11 ③ 12 ④ 13 ㉠은 농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이지만, 스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이다.

01 (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경 회로는 연결이 강화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경 회로는 연결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경 회로는 한 번 연결되면 약화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다)에서 여가 시간에 독서하는 사람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영상 시청을 하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나). 또한, (나)에서 여성 가족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다).

| 오답 풀이 | 가. 이 글에서는 유사한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쉽게 설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이 글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03 ㉠은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이고, ㉡은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과 ㉡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삭제하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은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알려 준다.

05 (가)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와 뇌의 사고 능력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중심 내용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이다.

06 (나)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이는 뇌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과정을 방해하여 기억력과 창의력이 떨어지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07 글을 요약할 때에는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에 따라 주요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중요하다. 각 문단의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포함하는 것은 요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약은 중심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고, 덜 중요한 내용이나 반복되는 예시 등을 생략하며, 중요한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문단의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포함하는 것은 요약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08 (다)에서 의류를 생산할 때 필요한 물의 양과 한 사람이 10.5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을 비교하여 수자원 낭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09 (나)와 (다)는 모두 의류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 (나)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는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자원의 오염과 많은 양의 물 사용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 (가)에서 패스트 패션 업체는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여 상품을 빠르게 회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며, ㉡은 이와 반대의 특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패스트 푸드는 조리 시간이 짧다고 하였으며, 패스트 패션도 최신 유행에 맞추어 빠르게 생산된다고 하였다.

② 패스트 푸드는 값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하였으며, 패스트 패션은 저렴하게 판매되는 옷이라고 하였다.

③ 패스트 패션은 일반적인 의류 업체와 달리 보통 1~2주 만에 새로운 옷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④ 패스트 패션은 일반적인 의류 업체와 달리 다양한 품목의 옷을 소량 생산하여 빠르게 회전시키므로 업체는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11 (나)에서 비가 내릴지, 내리지 않을지에 관한 내기에 스님은 동냥한 쌀을, 농부는 소를 걸기로 하였다.

12 농부는 농부대로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스님은 늘 땀(소금)에 젖어 있는 장삼을 만졌을 때 몹시 눅눅했으므로 공기 중에 물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3 (라)에서 스님은 ㉠은 농사 짓는 데 요긴한 것이므로 농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이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래서 스님은 내기에서 이겼음에도 농부에게 소를 도로 주었다.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본책 16~19쪽

- ① 계획 ② 매체 ③ 개요 ④ 고쳐쓰기 ⑤ 객관적
⑥ 삭제

-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① 06 ③
07 (마), 너비아니 자체에 대한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제
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08 ② 09 ③ 10 ③
11 ② 12 ② 13 ④ 14 이에 비해 너비아니를 전통적
인 방식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5 ②

- 0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예상 독자의 흥미를 끄는 내용이
라도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서연은 본격적인 글을 쓰기 이전에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 등
을 고려하여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서연
의 말과 관련된 글쓰기 단계는 ‘계획하기’이다.
- 03 너비아니를 비롯한 한식이 외국의 음식보다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에 가까우며, 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
니를 소개하는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 오답 풀이 | ① 외국인에게 너비아니를 소개하며 한국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외국인들이 이 글의 중심 소재인 너비아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미리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외국인은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 한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서술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외국인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 너비아니를 예상 독자인 외국인이 잘 아는 음식과 비교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04 (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중학교 학생들 중, 너비아니에 대해 아는 학생들은 26명, 신선로에 대해 아는 학생들은 13명이다. 따라서 신선로보다 너비아니에 대해 아는 학생들이 더 많다.
- 05 (가)는 전통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너비아니의 낮은 인지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글의 ‘처음’ 부분에 활용하여 글의 중심 소재인 너비아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06 (다)는 소고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의 영양 정보를 설명하는 자료로 소고기가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철분, 아연, 단백질 등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 07 이 글에 제시된 자료 중,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주제에서 벗어난 정보는 ‘경복궁 별빛 야행 축제’에 대해 소개하는 (마)이다. (마)에서 너비아니를 포함한 다양한 궁중 음식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축제 체험을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 08 글쓰기 계획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만, 수집한 자료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글의 목적과 흐름에 맞게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09 ‘중간 2’는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로, 글쓴이가 떠올렸을 생각은 너비아니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너비아니를 조리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이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내용은 개요에 없으므로, 글쓴이가 이와 관련한 생각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 10 <보기>의 자료는 너비아니의 조리 과정을 담은 영상으로,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2-나’(너비아니의 요리 순서)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1 <보기>에서 서연은 너비아니의 유래, 만드는 방법, 가치 등을 소개하겠다고 계획했다. 또한 ㉠은 ‘너비아니라는 이름의 유래’와 ‘너비아니와 관련된 기록’이 포함된 항목이므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 12 이 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너비아니를 소개하면서 그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쓴 글이다.
- 13 이 글에서 너비아니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제목에 ‘너도 아니?’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② (마)에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나)에서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가)에서 전통 음식 인지도 설문 조사를 제시하여 이 글의 주제를 설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 14 (라)에서는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하는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 목소리도 있다.”라는 문장은 이러한 흐름과 대조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글의 일관성을 깨뜨린다.
- 15 주제를 직접 드러내는 제목보다 너비아니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한 것이다.

3 세상을 담은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01. 품사로 빚어낸 세상)

본책 20~23쪽

- ① 형태 ② 역할 ③ 이름 ④ 수사 ⑤ 관계
⑥ 수식어 ⑦ 체언 ⑧ 감탄사 ⑨ 움직임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대명사,
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07 ⑤ 08 ②
09 밑줄 친 단어는 수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한다. 10 ③ 11 보다, 즐겁다,
떠오르다 12 ⑤ 13 ① 14 ③ 15 ④ 16 ⑤
17 ㉠: 조사, ㉡: 부사 18 ④ 19 ② 20 ① 21 ④
22 ⑤ 23 ⑤ 24 ③

- 01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면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 조사 ‘이
다’는 관계언이다.
- 02 ‘고양이’, ‘어제’, ‘하루’는 명사, ‘모든’은 관형사, ‘도대체’는 부
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반면, ‘앞드리
다’, ‘뿔다’는 동사, ‘상쾌하다’, ‘얇다’는 형용사로, 문장에서 쓰
일 때 형태가 변한다.
- 03 ‘영화’, ‘혼자’, ‘한테’, ‘어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마시다’와 ‘출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마시고, 마시
니’, ‘출고, 추우니’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한다.
- 04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체언이다. ‘우리’는 대명사, ‘사
랑’은 명사, ‘서너’는 수사로 모두 체언에 속한다.
- 05 ㉠ ‘저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
키는 대명사이다.
- 06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돈이 많거나 여러 가지 크고 거창한
꿈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대명사를 사용하면 같
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아 글의 내용이 간결해진다.
- 07 ㉡ ‘저기’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건물 지하에 있는 서점’을 의미한다.
- 08 ①, ③, ④의 ‘열다섯’, ‘셋’,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
고, ⑤의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②의 ‘한’은 뒤
에 오는 체언 ‘번’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 09 ‘둘’은 수사로,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
적어 등으로 쓰이며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 10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용언에 속한다.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
이지 않는 품사는 독립언이다.

- 11 용언은 문장에서 주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동사 ‘보니(보다)’, ‘떠올랐다(떠오르다)’
와 형용사 ‘즐거워(즐겁다)’이 이에 해당한다.
- 12 ① ‘바라던(바라다)’, ② ‘산(사다)’, ③ ‘오를(오르다)’, ④ ‘시
켰다(시키다)’는 모두 동사이다. 반면, ⑤ ‘낫더라(낫다)’는 ‘보
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 13 형용사는 어간에 현재형 어미 ‘-는다/-니다’,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넓
자’, ‘용감해라’는 적절하지 않다.
- 14 관계언은 단어로 인정되지만 자립하여 쓸 수 없고, 반드시 다
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따라서 관계언이 자립하여 쓰일 수 있
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5 제시된 문장에서 ‘는’, ‘에’, ‘에서’, ‘와’, ‘를’, ‘로’가 조사로 쓰였
다. 따라서 조사는 총 6개이다.
- 16 ⑤에 사용된 조사 ‘에게’, ‘를’은 모두 앞말이 일정한 자격을 갖
도록 하는 격 조사이다.
- 17 ㉠ ‘같이’는 체언 뒤에 붙어서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같이’는 뒤에 나오
는 용언 ‘먹읍시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18 ‘아무런’은 체언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문장에서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 19 ① ‘바로’, ③ ‘가장’, ④ ‘매우’, ⑤ ‘과연’은 모두 부사이다. 반
면 ② ‘온’은 뒤에 오는 체언 ‘거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20 ㉠ ‘현’은 뒤에 오는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
‘열심히’는 뒤에 오는 용언 ‘달려서’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21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
타내는 품사이다. ④ ‘추억’은 명사에 해당한다.
- 22 ㉠ ‘찻습니다(차다)’는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등이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 23 ‘아주’는 뒤에 오는 용언 ‘가늘게’를 꾸며 주는 부사이며, ‘가늘
게’는 ‘가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 24 ㉠ ‘이지’는 조사 ‘이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 오답 풀이 | ① ㉠ ‘이’는 체언 ‘영상’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 ‘응’은 감탄사로, 말하는 사람의 대답을 나타낸다.
④ ㉢ ‘예쁜’은 ‘예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⑤ ㉣ ‘좋은’의 기본형은 ‘좋다’로, 형용사이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와 소통)

본책 24~27쪽

- ① 쌍방향 ② 실시간 ③ 누리집 ④ 공적 ⑤ 개방적
⑥ 맥락 ⑦ 소통 공간

01 ② 02 ② 03 ③ 04 맥락, 목적, 공간, 참여자
05 ③ 06 ② 07 (가)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 소통하고,
(다)는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한다. 08 ④ 09 (가)
는 행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인 목적의 글이고, (나)는
정보 전달을 포함하나 주로 사적인 대화이다. 10 ③ 11 ③
12 (가): 누리집, (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13 ① 14 ⑤
15 ③ 16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공간에 사적인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17 ③

- 01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면 공간의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다.
- 02 누리집은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 등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으로, <보기>와 같은 특성을 지닌 매체이다.
- 03 온라인 대화방은 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범위인 사람들 또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기에 적절한 매체이다.
- 04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맥락'(공적인 맥락인가, 사적인 맥락인가?), '목적'(의사소통의 목적에 적합한 매체인가?), '공간'(소통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참여자'(의사소통의 참여자나 수용자를 고려하였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 05 (가)는 온라인 대화방,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다)는 누리집으로,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문자,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
- 06 (가)에서 수아는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혼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목격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가)는 상대가 대화 내용을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나, 상대가 대화를 확인한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다.
③ (나)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할 때 '#' 기호 바로 뒤에 붙은 단어만 해시태그로 인식되기 때문에, 단어를 모두 붙이는 것이다.
④ (다)는 문서를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가)와 달리 (나), (다)는 댓글을 작성하여 소통할 수 있다.

- 07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정민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 수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는 유기견 보호와 관련한 공식 누리집으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08 (가)는 학교 누리집, (나)는 단체 온라인 대화방이다. (나)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이 'ㅎㅎ'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가)는 공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므로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09 (가)는 학교 누리집의 게시 글로,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의 글이다. 반면,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정보 전달을 포함하나, 주로 친밀한 관계의 친구들이 나누는 사적인 대화이다.
- 10 (가)에서 조회 수를 통해 게시 글에 대한 관심도는 알 수 있으나, 누가 게시 글을 읽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1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대화방의 '그림말' 기능이다. 그림말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눈 깜빡이나 감정을 문자 대신 간단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도우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 12 (가)는 학교 누리집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고,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이다.
- 13 (가)는 누리집으로, 특정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공적인 성격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좋다.
- |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게시 글을 읽은 사람들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댓글을 작성하여 소통하고 있다.
③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를 눌러 게시 글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다.
- 14 (가), (나)와 같이 공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할 때에는 단체나 기관의 이름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 15 (가)는 공적인 성격의 소통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줄임말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과 같이 적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16 (나)에서 하준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친구와 개인적으로 다룬 일을 언급하였으므로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 17 (나)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글, 사진, 동영상, 해시태그 등을 활용하여 소통하기에 적합한 매체이다. 따라서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게시하여 여행지에 대한 감상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4 갈등을 푸는 지혜

(01. 문학과 갈등)

본책 28~31쪽

- ① 정직 ② 외적 ③ 양심 ④ 삼촌 ⑤ 수만
⑥ 죄책감 ⑦ 하늘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① 06 ①
07 ③ 08 ⑤ 09 ① 10 ㉠: 양심의 가책(죄책감), ㉡:
합리화(회피) 11 ② 12 ① 13 ③ 14 이 글에서
'하늘'은 깨끗한 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기는 죄책감으로 인
해 하늘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한
후 양심을 회복하여 뗏뗏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 01 문기가 고깃간에서 고기를 사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일
은 앞으로 문기가 겪는 다양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 02 (다)에서 문기는 삼촌의 훈계를 들은 후 혼자가 되자,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
고 있다. 따라서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는 설
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라)~(마)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던 문
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린 후 후련함을 느낀다.
② (나)에서 문기는 수만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자기 책임
은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수만과 함께 돈을 쓰기로 하였다.
③ (가)에서 문기는 며칠 전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고기
를 사러 갔다.
④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라)에서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 버리며 죄책감을 덜고자 하였다.
- 03 (나)에서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
슴이 두근거렸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
로 변했다.'에서 처음에는 남의 돈을 쓴다는 망설임이 있었으
나 갖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문기의 심리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04 (가)에서 문기는 며칠 전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이 일은 앞으로 문기가 겪게 될
갈등의 시작점이 된다.
- 05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던 문기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나머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
- 06 문기는 일 원짜리로 알고 고깃간 주인에게 돈을 내밀었으나,
거스름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 어리둥절하였다. 즉 ㉠은 거
스름돈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모습을 나타
낼 뿐, 문기가 고깃간 주인이 거스름돈을 잘못 준 것을 알면서
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니다.

- 07 문기는 수만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아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
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수만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기를 괴롭히는 모습에서 영악하고 계산
적임을 알 수 있다.
- 08 처음에 문기와 수만은 함께 어울리며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사고 싶은 것들을 산다. 그러나 삼촌에게 훈계를 듣고 잘못을
반성한 문기가 더 이상 양심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수만은 문기를 괴롭히게 된다.
- 09 ㉠은 문기가 저지른 두 번째 잘못으로, 수만의 협박에서 벗어
나기 위해 붙장 안에 있던 숙모의 돈을 훔친 일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으로써 문
기와 수만 사이의 갈등은 해소된다.
㉢. 이 글에서 숙모와 문기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10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줌으로써 문기의 내적 갈등은 더
욱 심화된다. 이에 문기는 밥도 덜 먹고 물건도 아껴 쓰면서
훔친 만큼 갚으면 그만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죄
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 11 (가)에서 문기는 점순이 자신 대신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양심
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이러한 문기의 죄책감은 (나)와
(다)에서 더욱 고조되고, 결국 (라)에서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나서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 12 이 소설은 문기가 양심을 되찾아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은 시
련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으로, 문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성장을 잘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
다는 의미이다.
㉢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예전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
지 못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을 비교는 말이다.
㉣ 서로 다른 의견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 쓰는
말이다.
㉤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살아 나갈 희망은 반드시 있다
는 의미이다.
- 13 ㉠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여기는 문기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난다.
- 14 이 글에서 '하늘'은 맑고 깨끗한 마음, 양심, 부끄러움과 죄책
감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다)에서 문기는 양심의 가
책으로 인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으나, (라)에서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한 후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문기
는 비로소 맑은 하늘을 뗏뗏이 쳐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02. 토의하기)

본책 32~35쪽

- ① 협력적 ② 사회자 ③ 제안 ④ 청중 ⑤ 최선
⑥ 근거

-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① 06 ④
07 ① 08 경험 09 ② 10 ④ 11 좋은 생각입
니다. 12 ② 13 ④

01 이 토의는 패널 토의로, 청중은 토의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는 없지만 토의자들 간의 의견 교환이 끝난 후,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

02 (다)에서 은우는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고 했을 뿐, 선착순이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서연은 수업 시간에는 짝이나 모둠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으므로 가까운 사이와 함께 앉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은우는 앞자리일 때 수업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뒷자리에 앉을 때 집중력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앉자고 제안하였다.

④ (라)에서 지아는 어떤 기준으로 자리를 정하든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지아는 친한 친구와 같이 앉으면 떠들게 되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였다.

03 이 토의에서 민준(사회자)은 토의를 하게 된 배경과 함께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면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04 (바)에서 지아는 은우의 질문에 답하고 있으나, 특정 용어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서연은 요즘 수업 시간에 짝이나 모둠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다는 배경을 제시하면서,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을 때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은우는 선착순의 방식을 먼저 제시한 후,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온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라는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③ (라)에서 지아는 서연과 은우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말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마)에서 지아는 서연의 제안에 대해 친한 친구와 같이 앉으면 수업 시간에도 떠들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때, 다른 토의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서연에게 질문하고 있다.

05 (나)는 토의자의 제안 단계로, 토의자인 서연은 근거를 들어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고 제안하고 있다. (마)는 토의자 간 의견 교환 단계로, 지아는 서연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서연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06 (다)에서 은우는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07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①과 같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것은 토의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은 토론이다.

08 (가)에서 지아는 친한 친구와 짝이 되었을 때 서로 말을 걸게 되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험을, 서연은 가까운 친구와 앉았을 때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09 ㉠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과 내용은 동일하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예의 바른 태도로 말한 것은 ㉡이다.

10 (다)에서 지아는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특정한 자리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유찬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있으며, 다른 토의자에게 답변을 부탁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서연은 은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친한 친구끼리 앉을 경우 마음을 다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고 있다.

② (나)에서 청중인 하윤은 은우의 제안에 대해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선호하는 자리를 일찍 오는 특정 학생들만 계속 앉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③ (다)에서 서연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할 경우 자리를 일정 기간마다 바꾸어 학생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지아의 의견을 보완하고 있다.

⑤ (라)에서 민준(사회자)은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기로 했다는 토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 토의에서 다음 내용을 안내하면서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11 (다)에서 “좋은 생각입니다.”라는 서연의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발언으로,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12 (가)에서 서연은 은서의 질문에 대해 같이 앉고 싶은 친구가 없는 경우 선생님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은서는 서연에게 친한 친구끼리 앉을 때 같이 앉고 싶은 친구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13 (라)에서 민준(사회자)의 말을 통해 자리를 추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첨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토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해력을 높이는 문제집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01. 운율, 비유, 상징의 즐거움)

본책 39쪽

- 01 ㉠ 02 ㉡ 03 ㉢ 04 참신하다 05 막연하다
06 구체적 07 ㉣ 08 ㉤ 09 ㉥ 10 우러러
11 증명하기 12 형성하며

- 02 '운율'은 '시문(詩文)의 음성적 형식. 음의 강약, 장단, 고저 또는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 시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와 같이 쓰인다.
- 04 '진부하다'는 '사상, 표현, 행동 등이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 05 '명확하다'는 '명백하고 확실하다.'라는 뜻이다.
- 06 '추상적'은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다.
- 11 제시된 문장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맥락으로, '어떤 상황이나 판단 등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다.'라는 뜻의 '증명하기'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추론하며 듣기)

본책 41쪽

- 01 ㉡ 02 ㉢ 03 ㉣ 04 연설 05 설득
06 자책감 07 ㉤ 08 ㉥ 09 ㉦ 10 명확하다
11 가치관 12 본격적

- 01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뜻으로, '같은 영화라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와 같이 쓰인다.
- 04 '독백'은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라는 뜻이다.
- 05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다.
- 06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 12 제시된 문장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맥락으로, '체계도에 올라 제격에 맞게 적극적인.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의 '본격적'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01. 요약하며 읽기)

본책 43쪽

- 01 ㉡ 02 ㉢ 03 ㉣ 04 일방적 05 지향하다
06 영향 07 ㉤ 08 ㉥ 09 ㉦ 10 유발할
11 대두되었다 12 일반화

- 01 '구조'는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라는 뜻으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와 같이 쓰인다.
- 03 '파악하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라는 뜻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이 쓰인다.
- 04 '확정적'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정하여진.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 05 '지향하다'는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 06 '무효'는 '보람이나 효과가 없음.'이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맥락으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의 '유발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본책 45쪽

- 01 ㉡ 02 ㉢ 03 ㉣ 04 두루 05 생성하다
06 은은하다 07 ㉤ 08 ㉥ 09 ㉦ 10 관여하고
11 해소할 12 구조화

- 01 '여부'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그 일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와 같이 쓰인다.
- 04 '일부'는 '한 부분. 또는 전체를 여럿으로 나눈 얼마.'라는 뜻이다.
- 05 '소멸하다'는 '사라져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 06 '명백하다'는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회사가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라는 뜻의 '관여하고'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을 해결하였다는 맥락으로,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해 없애 버리다.'의 '해소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3 세상을 담는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01. 품사로 빚어낸 세상)

본책 47쪽

- 01 ㉠ 02 ㉡ 03 ㉢ 04 거창하다 05 어머니
06 갈래 07 ㉣ 08 ㉤ 09 ㉥ 10 성질
11 비로소 12 엮매이지

- 01 '청유'는 '어떠한 행동 등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함.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으로, '나는 그녀의 청유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와 같이 쓰인다.
- 04 '사소하다'는 '보잘것없이 작거나 적다.'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의 '성질'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친구와 화해를 한 후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맥락으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의 '비로소'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관습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때 도움이 된다는 맥락으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몹시 구속되다.'라는 뜻의 '엮매이지'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와 소통)

본책 49쪽

- 01 ㉠ 02 ㉡ 03 ㉢ 04 공적 05 맥락
06 건의하다 07 ㉣ 08 ㉤ 09 ㉥ 10 공유하고
11 소통 12 활용하여

- 03 '상호 작용'은 '생물체 부분들의 기능 사이나, 생물체의 한 부분의 기능과 개체의 기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작용'이라는 뜻으로, '또래 친구와의 상호 작용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와 같이 쓰인다.
- 10 제시된 문장은 기쁨의 감정을 모든 국민과 나누고 싶다는 맥락으로,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라는 뜻의 '공유하고'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그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맥락으로, '도구나 물건 등을 충분히 잘 이용하다.'를 뜻하는 '활용하여'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4 갈등을 푸는 지혜

(01. 문학과 갈등)

본책 51쪽

- 01 ㉠ 02 ㉡ 03 ㉢ 04 모조리 05 착수하다
06 성화 07 ㉣ 08 ㉤ 09 ㉥ 10 차츰
11 공감하였다 12 우쭐거리고

- 05 '중단하다'는 '중도에서 끊다.'라는 뜻이다.
- 06 '안도감'은 '안심이 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맥락으로, '어떤 사물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모양.'이라는 뜻의 '차츰'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그가 소설의 결말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슬픔에 대해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는 맥락으로,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다.'라는 뜻의 '공감하였다'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친구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으스스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맥락으로, '의기양양하여 자꾸 뽐내다'라는 뜻의 '우쭐거리고'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토의하기)

본책 53쪽

- 01 ㉠ 02 ㉡ 03 ㉢ 04 미처 05 마련하다
06 운용 07 ㉣ 08 ㉤ 09 ㉥ 10 바람직하지
11 조정하여 12 토의

- 04 '비록'은 '아무리 그러하더라도.'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그 일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가치가 없다는 맥락으로, '바람직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의 '바람직하지'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두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혀 협의하였다는 맥락으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한다.'라는 뜻의 '조정하여'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민준과 친구들이 교실에서 자리를 바꾸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맥락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라는 뜻의 '토의'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